

분과 4

한국어 번역 연구

사회 : 고경태(고려대학교)

## 중국어 결과보어 한국어 번역양상 연구:

위화의 소설 『인생』을 중심으로

Song Lijuan(한국외국어대학교)

### 1. 연구의 필요성

중국어는 복잡한 보어체계를 가지며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보어는 바로 결과보어다. 중국어에서는 변화를 통해 발생한 구체적인 결과를 서술할 때 반드시 술어 뒤에 결과보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한 번역 시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본 연구는 의미지향학적 관점으로 술어와 결과보어의 구조에 대해 중한 번역시 번역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한국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작가 위화(余华)의 작품〈活着〉와 한국어 번역본<sup>1)</sup> 『인생』에서 나타난 중한 100개 병렬말뭉치를 모두 139개의 결과보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 1.1 중국어 결과보어와 한국어 보어 및 보조용언

한국어 문법체계에는 중국어의 결과보어 개념과 유사한 한국어 보조용언도 있다. 보조용언 의미적 특성에 있어서 보조동사는 크게 ‘동작’과 ‘양태’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동작의미는 크게 ‘완료/종결’, ‘진행’, ‘반복’, ‘사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중국어 결과보어는 술어가 완료된 결과의미를 보여주는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완료/종결’ 의미를 가진 보조용언인 ‘-어/아 버리다, -고 말다, -어/아내다’ 등과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어 결과보어와 한국어 보조용언 체계는 개념 및 의미 문법화와 관련된 내용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각각 구성성분의 특징, 선행 용언, 의미지향 등의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한 번역 시 완전히 대응시킬 수 없다.

#### 1.2 중국어 결과보어의 의미지향

Larson(1998:219-223)에서는 의미역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언급했다. 의미역이란 문장성분이 서술어와 관련되어 갖는 내재적인 관계를 말한다. 의미역에 대한 연구는 중국어에선 술어와 기타성분의 관계에 확장시켜 다른 문장성분과 이와 관련된 내재적인 관계까지 다루었다. 陆俭明(1997)에서는 의미지향이란 문장 안의 한 성분이 의미상 문장의 어느 성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한 본 연구방법에 있어서 결과보어 의미지향의 문법화 정도는 문법화하지 않은 것, 결과보어가 문법화된 것으로 나눈다. 결과보어 의미지향방향은 문장 안의 결과보어를 기준으로 의미 관련 성분이 결

1) 번역자인 백원담은 성공회대 교수로 문학가인 동시에 중국문학 연구자이다. 따라서 중국소설의 번역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번역가라 할 수 있다. 번역가가 번역의 정확성과 문장의 전달력에 힘을 쏟아 번역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과보어 앞뒤에 위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즉,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은 결과보어의 전방의미지향과 후방의미지향으로 분류된다. 결과보어 의미지향범위는 한 문장 내부적의미지향과 외부적의미지향<sup>2)</sup>으로 분류된다. 마지막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대상은 술어주체과 술어객체, 술어자체 의미지향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의미지향학적 관점을 번역에 적용함<sup>3)</sup>으로써 번역양상이 더 세부화되고 더 구체화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미지향 방향, 의미지향 대상을 정확히 알면 번역하는 학생이 원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고, 번역문이 효과적 등가를 이루는 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2. 의미지향에 따른 번역양상

아래 내용은 결과보어의 의미문법화 정도,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 의미지향 범위에 따른 번역양상이다.

### 2.1 문법화 정도에 따른 번역양상

아래 <표1>과 같이 결과보어의 의미 문법화 정도에 따른 통계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에서 의미가 문법화된 결과보어가 보편성을 갖는다.

<표1> 결과보어의 의미 문법화 정도에 따른 번역양상

결과보어 의미 문법화정도	문법화 하지 않은	문법화된 결과보어	결과보어의 총수
개수	35	104	139
비율	29.5%	74.8%	100%

먼저 소설 원문에 문법화하지 않은 결과보어의 번역양상을 제시한다. [예문1]에서는 ‘睁大’와 같은 표현이 있으므로 동사 睁 뒤의 결과보어 大는 본래의 뜻인 ‘크다’로 쓰인다. 번역문에서 결과보어 ‘大’는 ‘크게’라는 부사어의 형식으로 나타나 뒤에 ‘뜨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번역했다. 이렇듯 치환의 방법으로 등가를 이룬다.

[예문1]

ST: 这时风霞跑了过来, 她睁大眼睛对我说: “爹, 娘坐上轿子了。”

TT: 그때 평샤가 뛰어와 눈을 크게 뜨고는 나에게 말했다네. “아빠, 엄마가 가마 타고 갔어요”

[예문2]는 문법화된 결과보어에 대한 번역양상이다. 결과보어인 ‘白’는 원래 ‘하얗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의미가 문법화되어 ‘까놓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TT에서는 이를 생략했다. 하지만 문법화된 결과보어를 생략해서 번역하는 것이 원문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결과보어의 느낌은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sup>4)</sup>.

2) 赵世举 (2001:41)에서는 의미지향범위를 문장 내부의 의미지향과 문장 외부의 의미지향으로 나눴다. 여기서 “외부적” 개념은 한 문장성분이 의미지향하는 성분이 단문 외의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3) 민난식(2006)에서는 의미 단위는 가능한 상황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비교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번역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Tytler는 Principle of translation에서 번역 텍스트 스타일에 관련된 원칙을 언급했다. ‘That the style and manner of writing should be of the same character with that of the original.’ 이에 따라 원문의 분위기나 문체는 가능한 최대한 살려야 하며 번역문의 표현을 통해 원문의 언어미학 효과 등이 나타나야 한다.

[예문2]

ST: 后来我更喜欢赌博了, 嫖妓只是为了轻松一下, 就跟水喝多了要去方便一下一样, 说白了就是撒尿。

TT: 나중에는 도박을 더 좋아했고, 기생은 단지 한숨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보러 가게 되는 것처럼.

## 2.2 결과보어의 지향범위

〈표2〉에 따르면 내부적의미지향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결과보어와 의미지향 대상은 긴밀한 의미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둘이 동일한 문장 안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2〉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에 따른 번역양상

결과보어 의미지향 방향	내부적 의미지향	외부적 의미지향	결과보어의 총수
개수	130	9	139
비율	93.5%	6.5%	100%

외부적의미지향하는 [예문3]에서 결과보어 구조인 ‘清楚’가 앞의 문장에 나타난 주체인 ‘我’를 의미지향하고 주체인 ‘我’는 두 가지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我到处游荡’과 ‘我已经弄不清楚’다. 선행문장에서 술어주체 ‘我’가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에 동일한 주체가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생략되었다.

[예문3]

ST: 我到处游荡, 已经弄不清楚哪些村庄我曾经去过, 哪些我没去过。

TT: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지만, 어느 마을에 갔고 어느 마을에는 안 갔는지 잘 분간하지 못했다.

## 2.3 의미지향 방향에 따른 번역양상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은 전방의미지향과 후방의미지향으로 분류된다. 결과보어가 전방의미지향하는 것 중 술어의 주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가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드물게 결과보어가 전방 의미지향하면서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에 특수한 문장 유형인 ‘把’ 자문<sup>5)</sup>과 ‘被’ 자문이 바로 그 예이다. 왜냐하면 ‘把’ 자문과 ‘被’ 자문은 모두 목적어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목적어를 결과보어 앞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sup>6)</sup>. 아래 [예문4] 바로 ‘把’ 자문의 예시다. [예문4]에서 결과보어인 ‘光’은 술어의 객체인 ‘家产’을 의미지향하며 ‘가산을 탕진했다’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예문4] ST에서는 ‘把’ 자문을 통해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객체가

5) 马婷婷 (2019) 动结式的补语都指向‘把’的宾语, ‘把’的宾语可以是述语动词的主体论元、客体论元, 也可以是外围论元. 补语的语义优先向前指向‘把’的宾语指示一个倾向性规律, 并不具备普遍性.

6) 吕叔湘 (1948; 182) 은 동사의 전후에 특정 부가성분, 예를 들어 동사 뒤에 보어 등 일부 특수한 목적어와 동사 앞의 수식어 등이 부가될 경우 목적어는 본래의 위치인 동사 뒤에서 ‘把’를 사용하여 동사 앞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王力 《中国语法理论》에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把’자문은 ‘把’자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동사의 앞으로 전치시킨 것이며, 의미적으로 보면 그것의 주요한 작용은 일종의 목적이 있는 행위와 처리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술어와 결과보어 구조의 앞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결과보어가 앞으로 옮긴 객체를 전방의미지향하게 된다. TT에서 부사 ‘전부’를 추가함으로써 원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전달했다.

[예문4]

ST: 我才知道半年前就欠上他们了, 半年下来我把祖辈留下的家产全输光。

TT: 그제야 나는 비로소 반년 전에 그들한테 빚을 지기 시작해, 반년만에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가산을 전부 탕진했다는 걸 알았지.

결과보어가 후방의미지향하는 경우는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대부분의 술어는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2장에서 언급할 결과보어가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번역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의미지향대상에 따른 번역양상

아래 <표3>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결과보어 의미지향대상 가운데 술어자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는 술어객체 의미지향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대상에 따른 번역양상

결과보어의미 지향관계	술어와 결과보어의 지향이 같은 경우		술어와 결과보어의 지향이 다른 경우	
결과보어의미 지향 대상	술어주체 의미지향	술어객체 의미지향	술어자체 의미지향	기타 외부 의미지향
개수	13	78	39	9
비율	9.3%	56.1%	28.1%	6.5%
전체 비율	65.4%		34.6%	

#### 3.1 결과보어의 술어주체 의미지향 번역양상

아래 [예문5]술어 동사인 ‘笑’의 주체는 ‘脸’이다. 여기서 결과보어는 술어주체를 의미지향하기 때문에 주체인 ‘얼굴’이 ‘씩다’라는 결과와 관계를 맺는다. 즉, ST는 ‘那张脸笑’, ‘张脸烂了’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원문에서 ‘龙二’이라는 사람이 화자의 돈을 다 뺏어간 상황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생긴 룡얼에 대한 화자의 불쾌감은 부정적인 뜻을 가진 형용사 결과보어인 ‘烂’을 통해 알 수 있다. TT를 보면 ‘얼굴이 문드러진 것 같았다니까’로 번역했으나 접미사 ‘-지다’를 통해 룡얼의 얼굴이 썩어 힘없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는 TT처럼 술어와 결과보어의 연관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시 연결어미 ‘-다가-’와 접미사 ‘-지다’가 구성된 자동사로 번역하는 것이다.

[예문5]

ST: 龙二嘿嘿笑个不停, 那张脸都快笑烂了。

TT: 룡얼은 히히거리며 어찌나 웃던지... 웃다가 얼굴이 문드러질 것 같았다니까.

아래 [예문6]에서는 ‘-어지다’ 피동사와 보조용언을 사용함으로써 결과보어의 구조 ‘捆去’를 번역하는 예시다. [예문7] 동사 술어와 자동사 결과보어의 결합 ‘吊死’을 한국어 ‘-어/아서-’로 번역하는 예시다. TT에서는 중국어 술어와 결과보어 구조의 인과관계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한국어 연결어미 ‘-어/아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번역했다. 다음은 동사 술어와 형용사 결과보어의 한국어 번역양상에서 부사와 자동사의 구조로 번역하는 양상이다. [예문8] TT에서는 ST의 결과보어 구조인 ‘输惨’은 부사와 동사의 구조인 ‘ 제대로 지다’로 번역했다.

[예문6]

ST: 没过多久, 成群的国军向房屋和光秃秃的树木捆去。

TT: 잠시 후, 무리를 이룬 국민당군이 집과 앙상한 나무가 있는 쪽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

[예문7]

ST: 我在那条路上走了几步, 走不动了, 看看四周都看不到人影, 我想拿根裤带吊死算了。

TT: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군. 허리띠로 꼭 목을 매 죽고 싶었다네.

[예문8]

ST: 脑袋嗡地一下, 这次输惨了。

TT: 그 순간 머릿속이 뽕뽕거리더군.  제대로 진 거지.

### 3.2 결과보어의 술어객체 의미지향 번역양상

소설에서는 주로 결과보어 ‘到’, ‘成’ 그리고 피동문이 출현할 때의 술어객체 의미지향의 번역양상을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술어 뒤에 결과보어 ‘到’<sup>7)</sup>와 이루어진 결과보어 구조의 번역양상이다. [예문9]은 타동사 술어인 ‘看’와 결과보어 ‘到’가 결합한 구조다. ‘到’는 술어동사로 이룬 결과인 객체를 보여준다. TT에서는 원문의 동사를 의미 대응하는 타동사와 과거시제 ‘~를 봤다네’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형태구조가 가진 결과보어 구조 ‘听到’ ‘吃到’ 등 한국어로 ‘타동사+과거시제’ 구조로 번역할 수 있다.

[예문9]

ST: 我是在拐弯处看到她, 她一扭一扭地走过来。

TT: 나는 길모퉁이에서 처음 그녀를 봤다네. 그녀는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걷고 있었는데.

다음[예문10]는 타동사 술어 ‘变’뒤에 결과보어인 ‘成’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한국어로 ‘-으로 변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과거시제를 통해 결과의 완료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으로’를 통해 술어주체가 객체로 변하는 대상도 도출한다.

7) 윤서희, 성운숙(2009)汪树香(2006)등 즉, 중국어 결과보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흔히 한국어의 부사어나 서술어등 기타성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어 ‘到’에 대해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듣는다, 본다, 먹는다...’ 등의 술어 동사와 결과보어 ‘到’의 결합 뒤에 술어객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과보어 ‘到’가 보통 술어객체를 지향한다고 본다. 이는 동작이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행위대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看到, 听到, 吃到...’ 등의 결과보어 구조는 각각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먹었다.’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결과보어 ‘到’를 따로 분석하는 이유는 ‘到’ 뒤에 장소명사가 이어진 경우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예문10]

ST: “到了我手里, 徐家的牛变成了羊, 羊又变成了鹅。传到你这里, 鹅变成了鸡, 现在是连鸡也没啦。”

TT: “내 손에서 쉬씨 집안의 소는 양으로 변했고, 양은 또 거위로 변했다. 네 대에 이르러서는 거위가 닭이 되었다가, 이제 닭도 없어졌구나”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은 피동문일 때의 번역양상이다. 중국어 피동문에서는 항상 결과보어가 출현한다<sup>9)</sup>. 이는 周顺(2012)에 따르면 피동문이 전달하는 정보가 구정보인 것과 관련이 있고, 다시 말해 중국어에서 구정보를 나타내는 형식인 결과보어, 조사 ‘了’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예문11]는 피동문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양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번역문에서는 동사의 사동형으로 바뀌는 번역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어 피동구문과 한국어의 피동구문의 차이를 보여준다.

## [예문11]

ST: 那妓女嘟嘟囔囔背着我去城門走, 说什么雷公不打睡觉人, 才睡下就被我叫醒, 说我心肠黑。

TT: 그녀는 투덜거리며 나를 업고 성문 쪽으로 갔지. 천둥도 자는 사람은 깨우지는 않는 법인데, 이제 막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걸 보면 내 심장이 시커멓게 거라더군.

### 3.3 결과보어 술어자체 의미지향 번역양상

결과보어가 술어자체를 지향할 때 술어는 대부분은 동사이다. 동사 자체를 지향하는 것은 주로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 시간, 범위, 거리, 동작의 양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다<sup>10)</sup>. 이러한 결과보어는 주로 ‘近, 远, 多, 完, 上’ 등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번역양상은 아래와 같다. 먼저 동작을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데의 번역양상을 살펴하고자 한다. 앞에 언급한 것과 달리 여기 결과보어 ‘到’의 의미가 문법화되어 뒤에 장소, 거리, 범위 등에 관련된 명사성분이 나타나면 보통 동작이 이동하는 거리나 이동 범위의 결과를 의미하여 동사자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술어인 자동사 뒤에 결과보어 ‘到’가 나타났고 뒤에 장소명사가 이어지는 경우에 결과보어 구조는 번역문에서 대개 ‘-에/로+동사’로 번역했다. [예문12]에서도 결과보어 ‘到’ 뒤에 추상적인 장소 ‘那种地步(그런 처경)’이 나타났다. TT에서 ‘그 지경에 처하다’라고 번역했다. 격조사 ‘에’를 통해 동작 ‘落(떨어뜨린다)’가 이루어진 결과를 도출했다. 문장 속 등장인물 예전 풍유한 생활에서 현재 이 처경까지 전락하는 불쌍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또한 과거와 현재와 비교하는 느낌을 살려냈다.

## [예문12]

ST: 其实人落到那种地步也就顾不上那么多了, 我算是应了人穷志短那句古话了。

TT: 사람이 그 지경에 처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게 되지. “궁하면 뜻이 작아진다”는 옛말을 따를 작정이었네.

[예문13]는 결과보어가 동작의 이동거리를 보여주는 예시다. 소설 원문에서는 주로 자동사 뒤에 형용사 결과보어 형용사인 ‘近(가깝다)’와 ‘远(멀다)’로 동작의 이동거리를 보여주었다. 결과보어의 구조인 ‘走远’은 번역문에서 ‘멀리 사라지다’

9) 刘月华 (2001)에서는 결과보어가 동사일 경우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으로 생긴 행위자나 동작 대상의 피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0) 술어가 동사인 경우 뒤에 나타나는 결과보어는 동작의 발생시간, 종료시간, 상태, 이동거리, 동작 량, 동작의 속도 등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马10)婷婷(2019)에서는 이러한 결과보어의 구체적 예시로는 ‘早일찍, 晚늦다, 长길다, 短짧다, 久오랫다, 迟늦다, 快빨르다, 慢느리다, 迅速급속하다, 多많다, 少적다’ 등이 있다고 했다.

로 번역했다. [예문14]은 결과보어가 동작이 발생한 수량을 보여줬다. 여기 ‘多喝’는 마시다라는 동작이 많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강조하는데 번역문에서 ‘많이 마시다’로 번역했다.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 뒤에 결과보어의 구조에서는 대체 한국어에서는 부사와 동사나 형용사의 구조로 전환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예문13]

ST: 我苦笑着看他走远。

TT: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예문14]

ST: 后来我更喜欢赌博了, 嫖妓只是为了轻松一下, 就跟水喝多了要去方便一下一样, 说白了就是撒尿。

TT: 나중에는 도박을 더 좋아했고, 기생은 단지 한숨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보러 가게 되는 것처럼.

아래 [예문15] [예문16] [예문17]은 소설원문에서 발견한 동작이 발생한 시간과 관련된 결과보어의 예시다. 동작이 발생한 시간에 관련된 결과보어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完’과 ‘上’, ‘掉’ 결과보어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본래의 의미에서 문법화하여 문법적 의미가 더 강하다. 각각 한국어로 ‘-어 내다, -어 버리다, -기 시작하다’로 번역했다.

[예문15]

ST: 擦完脸我把毛巾往盘子里一扔。

TT: 나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얼굴을 닦아낸 수건을 쟁반에 던져놓고.

[예문16]

ST: 他改掉了坏习惯。

TT: 그는 나쁜 습관을 고쳐버렸다.

[예문17]

ST: 我才知道半年前就欠上他们了, 半年下来我把祖辈留下的家产全输光。

TT: 그제야 나는 비로소 반년 전에 그들한테 빚을 지기시작해, 반년만에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가산을 전부 탕진했다는 걸 알았지.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어의 의미지향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먼저 문법화 정도에 따른 번역양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문법화된 결과보어의 사용 빈도는 그렇지 않은 결과보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화되지 않은 결과보어 번역양상을 보면 직역하는 경우가 많다. 문법화된 결과보어의 번역양상은 대부분 이를 생략해서 번역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범위는 결과보어는 문장 내 의미지향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은 결과보어의 전방의미지향과 후방의미지향으로 분류된다. 통계에 따르면 결과보어가 결과보어 앞의 성분보다 뒤의 성분과 더 긴밀한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보어가 전방의미지향하면서 술어의 객체를 지향하는 경우는 주로 ‘把’ 자문, ‘被’ 자문에서 출현한다. TT에서는 부사를 추가함으로써 원문의 표현효과를 전달했다.

결과보어 의미지향 대상에 있어서 먼저 결과보어가 술어를 주체지향하는 경우, ST 동사와 동사의 결과보어 결합은 ‘-어서’ ‘-다가’ 등 연결어미를 통해 ST 두 개 동작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동작 이루는 방식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ST에서 술어 동사와 형용사인 결과보어 결합은 TT에서 부사와 형용사의 구조로 나타나거나 ‘-게’ ‘-도록’의 형태로 번역되어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지다’어미로 구성된 구조로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했다.

다음은 중국어의 결과보어가 술어의 객체를 지향하는 경우에 중국어에서 술어가 타동사일 경우 많이 나타났다. 첫째, 술어인 타동사 뒤에 결과보어 ‘到’가 이어 ‘看到’ ‘听到’ ‘想到’등의 구조를 이룬다. 이는 TT에서 타동사와 과거시제로 번역했다. 둘째, 술어인 타동사 뒤에 결과보어 ‘成’가 나타나면 이러한 구조는 번역문에서 주로 타동사와 과거시제, 조사 ‘~으로’ 등의 문법요소를 통해 실현했다. 셋째, 피동문문일 경우다. 중국어 피동문은 보통 ‘피동주+被+행동주+술어+결과보어+기타성분’으로 이루어진다. TT에서는 ST술어와 결과보어 구조 중 술어를 생략하고 결과보어만 번역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결과보어가 동사 자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과보어가 동사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결과보어가 동작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는 결과보어 ‘到’는 주로 동사 뒤 격조사 ‘~에’ ‘~으로’ 등을 추가해 장소 명사를 도출했다. 두 번째는 동작의 이동 거리와 수량을 강조하는 결과보어 ‘远’와 ‘近’, ‘多’가 나타나면 이는 주로 ‘적게, 많이, 가까이 등 부사와 동사’의 구조로 번역했다. 세 번째는 동작 이동 시간을 강조하는 결과보어 ‘完’와 ‘上’ ‘掉’는 번역 시 보조용언 ‘-어/아내다’, ‘-하기 시작하다’, ‘-어/아 버리다’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의미지향학적 관점에서의 번역양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어가 문학작품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의미지향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중국어 술어와 결과보어의 구조는 한국어로 번역시 주로 ‘부사+술어’, ‘-다가-’ ‘-어서-’ ‘-도록’ ‘-게’ 등 연결어미를 포함하며, ‘동사+과거시제’, ‘본용어+보조용언-어/아내다’, ‘-하기 시작하다’, ‘-어/아 버리다’의 구조 등을 통해 중국어의 ‘결과’라는 의미를 재현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어 결과보어 번역 시 의미지향학적 관점을 통해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를 살려 원문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 이근희(2015)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马真, 陆俭明 (1997a) 【形容词做结果补语考察 (一)】 【汉语学习】 第一期
- 潘文娱 刘月华 故 (2012) 商务印书馆 【实用现代汉语语法】
- 김지원(2010) [현대중국어 결과의미 보어의 의미지향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马婷婷 (2016) 现代汉语结果补语语义指向研究 华中科技大学 博士论文
- Larson, M.1998. Meaning-Based Translation, Zanded.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토론〉 “중국어 결과보어 한국어 번역양상 연구: 위화의 소설 『인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화진(국민대학교)

본 연구는 작가 위화의 소설 『活着』와 한국어 번역본 『인생』에서 나타난 139개의 결과보어를 대상으로 의미지향적 관점에서 술어와 결과보어의 구조에 대한 번역양상을 살펴 본 연구입니다. 어느 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쓰여진 글의 내용과 형식을 다른 언어로 재현하는 과정은 두 언어 간의 어휘, 문법, 통사구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자의 숙명이기에 각고의 노력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에서 결과보어는 술어 뒤에 위치하여 동작의 결과 또는 상태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데, 한국어의 다양한 형식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어 결과보어가 한국어 번역시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의미지향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보어의 한국어 번역양상을 의미지향 방향, 의미지향 범위, 의미지향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번역의 구체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드는 의문점과 토론자의 무지함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1) 2.1 문법화 정도에 따른 번역양상

문법화된 결과보어를 생략하면 원문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럼 아래의 예문 중 “说白了”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연구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T: 后来我更喜欢赌博了, 嫖妓只是为了轻松一下, 就跟水喝多了要去方便一下一样, 说白了就是撒尿。  
 TT: 나중에는 도박을 더 좋아했고, 기생은 단지 한숨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보러 가게 되는 것처럼.

### 2) 2.2 결과보어의 지향범위

“〈표2〉에 따르면 내부적의미지향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보어와 의미지향 대상은 긴밀한 의미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둘이 동일한 문장 안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략) 선행문장에서 술어주체 ‘我’가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에 동일한 주체가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생략되었다.”

결과보어와 의미지향 대상이 긴밀한 의미관계를 맺어서 내부적 의미지향이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한 문장 안에 주어와 술어가 같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것이 아닌런지요? 또한 동일한 주체가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주어를 생략하는 현상은 결과보어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 ① 결과보어가 쓰인 문장 : 我早晨得早早起来, (我)把没做完的作业做完。  
 ② 결과보어가 쓰이지 않은 문장 : 我坐在祭坛前座位上, (我)听了牧师说教。

### 3) 2.3 의미지향 방향에 따른 번역양상

“하지만 드물게 결과보어가 전방 의미지향하면서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에 특수한 문장 유형인 ‘把’자문과 ‘被’자문이 바로 그 예이다. 왜냐하면 ‘把’자문과 ‘被’자문은 모두 목적어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목적어를 결과보어 앞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중략) [예문4]에서 결과보어인 ‘光’은 술어의 객체인 ‘家产’을 의미지향하며 ‘가산을 탕진했다’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把’자문과 ‘被’자문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해당 구문이 가지는 특수한 구조 때문이지 결과보어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과보어가 사용되지 않은 ‘把’자문과 ‘被’자문에서도 목적어가 앞에 위치합니다. (他昨天被人打了。 / 你把里里外外再检查一遍)

### 4) 3.2 결과보어의 술어객체 의미지향 번역양상

“‘到’는 술어동사로 이룬 결과인 객체를 보여준다. TT에서는 원문의 동사를 의미 대응하는 타동사와 과거시제 ‘~를 봤다네’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형태구조가 가진 결과보어 구조 ‘听到’ ‘吃到’ 등 한국어로 ‘타동사+과거시제’ 구조로 번역할 수 있다.”

결과보어 ‘到’는 목적, 결과의 달성 및 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을 과거시제로 해석하는 건 다른 문장 요소 또는 문맥 상황에 따르는 것이지, ‘到’가 과거시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看到他那张狂劲, 我心里就烦. (그의 거만한 표정을 보면 나는 짜증이 나.)

别人能听到, 稍微小声点儿说. (다른 사람한테 들리니까 조금 작게 말해.)

5) 이번 연구는 백원담 번역의 『인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결과보어의 번역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번역 양상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같은 작가의 다른 번역서 즉, 최용만 번역의 〈허삼관매혈기〉, 〈형제〉를 함께 검토하는게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한국어 번역 연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일한 번역문에 나타난 수(數)관련 표현 연구

—‘一人’ ‘二人’의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HONDA NIKA(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통역·번역의 경우, 외국어(L2)를 모국어(L1)로 번역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국어(L1)를 외국어(L2)로 번역하는 Backword Translation도 L1구사 능력과 동일한 수준이 요구된다. 외국어 학습의 경우, 일차적으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고, 이는 대체로 일대일 표현을 도출하기 위한 훈련으로부터 시작한다. 초급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세부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온전히 학습자(외국어 사용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수(數)와 관련된 표현이다.

한국어 교육 관련 서적을 보면 수사 쓰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통사론적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가령 수사는 고유어, 한자어, 알파벳이 있으며 수관형사는 순수 한국어 계열(한, 두, 세, 네, 다섯 등)과 한자어 계열(일, 이, 삼, 사, 오 등)로 나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초급 단계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든 어휘가 그렇듯이, 수 표현 또한 다양한 쓰임이 존재한다면, 모국어의 직관이 없는 학습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항목이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일본어로 된 원문텍스트(ST)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도착텍스트(TT)에 나타난 수 표현<sup>1)</sup>을 살펴봄으로써 L1 번역자가 사용하는 직관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그 쓰임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으로는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 문학작품으로 하였으며, 교보문고가 선정한 2019년 베스트셀러 작품으로 하였다. 그 중, 출판사와 역자가 동일한 작품은 제외시키고 상위 4권<sup>2)</sup>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상기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문학 작품 중, ST에 있는 수 표현이 TT에서 어떤 표현으로 실현되었는지를 파악한 다음, 찾아낸 표현 중에서 빈도수가 특히 많은 어휘를 중심으로 양상을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양상이 나타난 ‘인간성 수 표현’을 중심으로 TT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람 관련 수 표현의 번역 양상을 보면 ‘一人’은 14가지, ‘二人’은 16가지 표현이 나타나 다양성을 언급하기에 충분하

1) 본고에서는 언어학에서 다루는 품사의 개념인 ‘수사’ 또는 ‘분류사’가 아닌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숫자 표현의 의미에 대해 다루므로 ‘수 표현’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문학소설의 페이지 수는 원서『誓約』321페이지, 역서『돌이킬 수 없는 약속』379페이지, 원서『ナミヤ雜貨店の奇蹟』413페이지, 역서『나미야 잡화점의 기적』455페이지, 원서『人魚の眠る家』469페이지『언어가 잠든 집』507페이지,『ノルウェイの森』531페이지, 역서『노르웨이의 숲』567페이지이다.

다고 볼 수 있으나 ‘三人’은 8가지, ‘四人, 五人’은 3가지, ‘六人, 二十人’은 한 가지로 숫자가 커질수록 ST 자체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一人’와 ‘二人’ 두 가지 표현을 중점적으로 의미 성분 분석을 통해서 ‘一人’ ‘二人’이 가지는 의미적 특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표현들 사이에서 실현되는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일한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수 표현에 관한 번역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문맥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비교 분석해, 의사소통 요소를 찾아보고, 보다 좋은 번역 표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1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와 일본어의 분류사(수사)와 관련하여 대조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松本(1991:85)에 따르면 ‘인간’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수사에는 ‘-リ/ニン(人)’, ‘-メイ(名)’, ‘-カタ(方)’가 있으며, 이중 ‘-リ/ニン(人)’은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며, 일본어 ‘-メイ(名)’, ‘-カタ(方)’의 한국어 설명은 ‘-メイ(名)’는 ‘=명’으로, ‘-カタ(方)’는 ‘-분’으로 각각 되어 있었다. 이는 출발어 텍스트에서 바로 도착어 텍스트로 일대일 대응시킨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언어학적인 관점인 형태적인 분석에 그쳐 있으며, 번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一人’도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모두 의미도출 과정에서 현동화<sup>3)</sup>하여 재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Fauconnier(2000)에 의하면 언어학자들의 일은 모국어화자로부터 문법성(grammaticality)에 관한 판단을 수집(collect)하여, 개별언어와 언어전반의 형식적 구조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그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하는 것(今井·2015:137)이라고 하였으며 본고의 연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Jackendoff(1983), Pinker(1994), Li & Gleitman(2002), Wierzbicka(1996)를 포함하여 형식주의 이론가들과 비형식주의 이론가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의미분해를 옹호해왔다(임지용 2008:67). 구조주의의 의미론에서 행하던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은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 자질로 분해하려는 시도이다(강범모 2018: 226). 성분분석 이론은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단어와 변별시킬 수 있는 의미성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성분분석 이론은 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신현숙 2012:155). 노명현(2012)에 의하면 성분분석은 한 언어에서 단어들 사이에 성립하는 의의관계를 나타내주는 체계적이며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해준다. 이와 같이 의미 구조를 표시하는 의미표시는 많은 의미특성과 의미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강범모(2018)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의미 자질에 차이가 나는 ‘소년’과 ‘처녀’([성], [어른]의 차이)를 반의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一人’, ‘二人’의 번역 결과물로 나타난 표현들 또한 반의어가 아니므로 두 개 이상의 자질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어휘의 의미연구는 체계성, 엄밀성, 균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최호철 2013:1). 그러기 위해서도 본고에서는 의미 자질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겠다.

의미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최호철(2013)의 ‘먹다’, 김혜령(2013)의 ‘내리다’와 ‘추락하다’와 같이 동사, 권용문(2013)의 ‘너무, 아주’ 신우보(2013)의 ‘가장, 훨씬’ 등 정보부사, 그 외에도 왕보하(2013)의 ‘조차’, 박지영(2013)의 ‘도, 마저’와 같

3) 현동화(actualization)이란 텍스트 속에 구현된 문자화된 단어를 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념 혹은 그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 경험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정호정 2001:252).

은 보조사, 정유남(2013)의 ‘-고자, -려고’와 같은 연결 어미, 백형주(2013)의 ‘상하 공간어’, 황림화(2013)의 ‘바닥’와 같은 명사 등 다양한 품사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2 의미성분을 통한 의미자질 분석법

본고의 연구 대상과 유사한 체언을 다룬 백형주(2013), 황림화(2013)에서 사용한 의미자질을 각각 살펴보면 백형주는 [+하위성],[+기초성],[+신체성],[+지위성],[+영향성],[+내부성],[+하류성],[+착용성],[+수량성],[+수준성],[+시간성]자질로 분류했으며, 황림화는 [+하위성],[+굴곡성],[+추상성],[+용기성],[+경계성],[+인간성],[+수접성],[+내부성],[+가치성],[+지역성],[+직물성],[+표면성],[+소모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의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어휘의 각 표현을 의미 자질로 정리한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사람을 셀 때 사용하는 수 표현인 ‘一人’, ‘二人’는 명사가 아니므로 국어사전<sup>4)</sup>에 뜻풀이되어 있지 않아 자질 분석 기준은 소설 속에 나오는 문장 속 상황과 문맥을 근거로 하겠다.

신현숙(2012)에서는 어휘 항목을 분석할 때 의미성분과 의미 자질의 수의 적절성, 어휘 항목에 따른 성분 분석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의미 분석 자질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一人’와 ‘二人’라는 어휘장 안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의미 자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一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누어보면 [+숫자성],[+거리감],[+의지],[+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숫자성]은 ‘하나’ ‘둘’ ‘셋’과 같이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나타난 표현을 뜻한다. [+거리감]은 화자가 가리키는 ‘一人’과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며 ‘홀로’와 ‘스스로’는 화자 본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거리감 자질에서는 제외시켰다. [+의지]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낸다는 개념으로 보았다. [+감정]은 외롭거나 쓸쓸한 느낌이 있는 표현으로 ‘홀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공손성]은 공식석상에서 쓸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군집성]은 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일부를 나타내며 [+분리성]은 각각 나뉘지는 표현을 나타낸다.

‘二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누어보면 [+숫자성],[+거리감],[+명시성],[+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명시성]는 대상이 각각 구체적인 명사로 표현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감정]은 ‘一人’과 달리 서로 친밀한 느낌이 있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있다.

## 3. 일한 수 관련 표현 번역 양상

연구 대상으로는 일본어 문학 소설을 A언어가 한국어인 번역가가 번역한 작품에서 사용된 수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연구 자료는 교보문고에서 선정한 2019년 연간 베스트10<sup>5)</sup> 소설 중, 작가가 일본인의 작품으로 하였으며, 첫 번째 작품은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TT1), 원제는 『誓約』(ST1)역자는 김성미, 출판사는 북플라자이다. 두 번째 작품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TT2)원제는 『ナミヤ雜貨店の奇蹟』(ST2)역자는 양윤옥, 출판사는 현대문학이다. 세 번째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언어가 잠든 집》(TT3)원제는 『人魚の眠る家』(ST3)역자는 김난주, 출판사는 재인이다. 네 번째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TT4)원제는 『ノルウェイの森』(ST4)역자는 양역관, 출

4) ‘한사람’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명사」 같은 사람.

예) 그는 며칠 전 길에서 마주쳤던 남자와 한사람이었다.

5) 영업점과 인터넷에서 도서와 eBook을 합산하여 1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순위이다.

판사는 민음사이며, 총 4권을 분석하였다. 2019년 연간 베스트에 포함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마력의 태동》 원제: 『魔力の胎動』는 출판사가 현대문학이며, 역자도 양윤옥이어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연구 자료로 선정한 소설에 나오는 수 표현을 모두 찾아낸 다음, 그 중에서 빈도수가 많은 어휘를 중심으로 그 번역 양상을 수치화하였다. 수 표현 중 ‘년, 월, 일, 시, 분’과 같은 시간표현은 일한 번역에서 의미상 상이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ST에서 바로 TT를 도출해낼 수 있다. 반면 인간성 수 표현에 경우, ST에서 TT를 도출할 때는 재표현(Reformulation)<sup>6)</sup>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표현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 표현 중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 중 일대일로만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형태는 상이하나 표기상의 차이일 경우, 예를 들어 ‘1명’, ‘한 명’과 같은 표현은 언어사용에 따른 차이가 아니므로 동일 표현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 표현은 명사, 조사 등 다른 품사와 결합하여 의미를 첨가하는 특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어휘 차원의 표현 양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一人<sub>ニ</sub>’의 번역이 ‘혼자<sub>선</sub>’ 외에 ‘한 명<sub>이</sub>어도’ ‘한 명<sub>이</sub>면’처럼 번역이 세분화되므로 연구 범위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 3.1 ‘一人’ 표현에 대한 통계적 분석

ST ‘一人’이 TT에서 표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ST ‘一人’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혼자’, ‘하나’, ‘㉸’, ‘한 명’, ‘한 사람’, ‘한’, ‘어떤’, ‘홀로’, ‘한 학생’, ‘스스로’, ‘각자’, ‘아무’, ‘일원’, ‘그들’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혼자’, ‘한 명’, ‘한 사람’, ‘홀로’처럼 ‘一人’이 사전적 의미로 표현된 비율은 전체의 72.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대체 어휘가 사용된 경우는 ‘하나’, ‘스스로’, ‘각자’, ‘그들’로 전체의 12.2%였으며, 부정사로 표현된 경우는 ‘한’, ‘어떤’, ‘아무’, ‘일원’으로 전체 비율의 5.6% 나타났다. ‘一人’이 TT에서 생략된 경우는 전체의 9.1% 나타났다.

### 3.2 ‘二人’ 표현에 대한 통계적 분석

ST ‘二人’이 TT에서 표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二人’은 ‘둘’, ‘두 사람’, ‘두’, ‘우리’, ‘두 명’, ‘우리 둘’, ‘아버지(와) 어머니’,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두 분’, ‘가오루코’, ‘쇼타와 고헤이’, ‘가도와키는 그녀’, ‘너희’, ‘그들’, ‘부모’로 16가지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 중 ‘두 사람’, ‘두 명’과 같이 사전적 의미로 번역된 비율은 전체의 26.3%로 이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둘’, ‘우리’, ‘우리 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두 분’, ‘그들’, ‘너희’와 같이 대체 어휘로 표현된 경우는 전체의 55.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부정사인 ‘두’는 전체의 4.7%였으며,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가오루코’, ‘쇼타와 고헤이’, ‘가도와키는 그녀’와 같이 고유명사로 나타난 경우는 전체의 2%였다.

## 4. 일한 수 관련 표현 자질 분석

이 장에서는 일한 번역에 나타난 수 표현 중 ‘一人’, ‘二人’의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고 각 자질 별로 이들이 갖는 의미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6) 해석이론에서 말하는 재표현(Reformulation)이란 의미도출 단계에서 도출된 인지적 정보로서의 의미를 재표현하는 과정은 단순한 재부호화(re-encoding)가 아닌 의미등가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정호정 2001:256).

## 4.1 ‘一人’ 표현에 대한 자질 분석

### 4.1.1 숫자성

[+숫자성]은 ‘한 사람’, ‘한 명’, ‘한 학생’, ‘하나’, ‘한 분’, ‘한’이 있다. 또한 [-숫자성]은 ‘일원’, ‘그들’, ‘아무’를 들 수 있으며 [±숫자성]은 ‘혼자’, ‘어떤’, ‘각자’, ‘홀로’, ‘스스로’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예1]은 나가사와가 하쓰미(와타나베)에게 시부야의 바에서 와타나베와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자 둘에 대해 말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1] ST4: 「一人の子はきれいだったんだけど、もう一人がひどくてき、」(110-4)

TT4: “한 애는 예쁜데 다른 한 애는 너무 아닌 거야.”(405-15)

위에서 ‘한’은 두 명을 만나고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각각 비교하는 one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다음 [예2]는 하루미가 사업을 시작하여 정보공학과 출신 학생 몇 명을 채용하고 진행했던 시도들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예2] ST2: 一人に一台ずつパソコンを与え、インターネットで何ができるかを考えさせた。(382-3)

TT2: 그들에게 컴퓨터를 한 대씩 내주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안해보게 했다.(413-20)(1인칭주인공 시점)

위에서 ‘그들’은 하루미가 고용한 직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one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닌 복수의 뜻을 나타낸다.

### 4.1.2 거리감

[+거리감]은 ‘한 학생’, ‘한 분’, ‘어떤’, ‘각자’, ‘일원’, ‘그들’, ‘아무’, ‘한’,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거리감]은 ‘한 사람’, ‘한 명’, ‘혼자’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홀로’와 ‘스스로’는 화자 본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거리감 자질에서는 제외시켰다. [예3]은 가도와키가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바라보는 마혼 전후의 여자를 발견하는 장면이다.

[예3] ST3: たしかに本屋のそばに女性が一人立っていた。(249-13)

TT3: 그녀 말대로 서점 앞에 안경을 낀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270-12)(1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하나’는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다. 일본어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해 고유어로 된 양수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번역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 [예4][예5]는 각각 [+거리감]과 [-거리감] 두 자질을 가지는 예문이다. [예4]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져 낯선 사람들이 고스케의 방에 있던 음향 기기를 모조리 실고 가는 장면이다.

[예4] ST2: 男の一人は紀美子に金を渡していた。(222-17)

TT2: 그중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다. (245-3)(1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한 사람’은 음향 기기를 실어 간 낯선 사람이므로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다. 아래의 예문은 가오루코가 뇌사 판정을 받은 딸 마즈호에게 운동을 시켜줄 수 없냐고 가즈마사에게 제안하는 장면이다.

[예5] ST3: 相談できる人間は一人しかいなかった。(170-6)

TT3: 의논할 상대는 한 사람뿐이었다. (184-21) (1인칭주인공 시점)

위에서 ‘한 사람’은 [예4]와 달리 의논할 사람으로 남편인 가즈마사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심리적 거리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1.3 의지

[+의지]는 ‘스스로’를 들 수 있다. [-의지]는 ‘한 사람’, ‘한 명’, ‘한 학생’, ‘하나’, ‘한 분’, ‘한’, ‘어떤’, ‘각자’, ‘일원’, ‘그들’, ‘아무’가 있으며 [±의지]는 ‘혼자’, ‘홀로’가 해당한다. 아래 [예6]은 나오코가 와타나베에게 자살한 언니에 대해 말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6] ST4: 「大抵のことは自分一人で処理しちゃう人だったのよ」(264-9)

TT4: “어지간한 일은 스스로 처리해 버리는 사람이었어.”(291-8)

위에서 ‘스스로’는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없었던 언니’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아래 [예7]은 와타나베가 미도리와 백화점에 가서 식사 후 옥상에 가는 장면이다.

[예7] ST4: 雨の屋上には人は一人もいなかった。(204-9)

TT4: 비 내리는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506-9) (1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아무’는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의지는 없는 표현이다.

#### 4.1.4 감정

[+감정]은 ‘홀로’가 있다. [-감정]은 ‘한 학생’, ‘하나’, ‘한 분’, ‘한’, ‘어떤’, ‘각자’, ‘일원’, ‘그들’, ‘아무’가 해당되며 [±감정]은 ‘한 사람’, ‘한 명’, ‘혼자’가 있다. 아래 [예8]은 와타나베가 하쓰미에게 하쓰미 씨 같은 누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예8] ST4: 「つまりね、僕には兄弟がいなくてずっと一人で育ってきたけれど、」(127-2)

TT4: “난 말이죠, 형제 없이 태어나서 오로지 홀로 자랐지만 외롭다거나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423-2)

위에서 ‘홀로’는 외롭거나 쓸쓸하다는 느낌이 드러나는 문장이므로 감정이 있는 표현이다. 아래 [예9]는 고스케가 휴게소에서 아무 트럭이나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다.

[예9] ST2: しばらくすると一人の男がやってきて、そのうちの一台に乗り込んだ。(255-4)

TT2: 잠시 뒤에 아저씨 하나가 나와서 그중 한 대에 올랐다.(278-20) (1인칭 관찰자 시점)

위에서 ‘하나’는 낯선 트럭 기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외롭거나 쓸쓸한 느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4.1.5 공손성

[+공손성]은 ‘한 분’과 ‘일원’이 해당된다. [-공손성]은 ‘한 사람’, ‘한 명’, ‘한 학생’, ‘하나’, ‘혼자’, ‘한’, ‘어떤’, ‘각자’, ‘일원’, ‘그들’, ‘아무’, ‘홀로’, ‘스스로’가 있으며 [+공손성]은 ‘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음 [예10]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미즈호의 AIBS 전원을 끄고 뇌사 판정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다.

[예10] ST3: このテストをするため、AIBS研究チームの一人である医師が、慶明大学からアドバイザーとして立ち会っていた。(452-3)

TT3: 이 테스트에는 AIBS 연구팀의 일원인 게이메이 대학 병원 의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488-18)(3인칭 관찰자 시점)

위에서 ‘일원’은 최신헌 호흡 제어기 연구팀의 우수한 의사를 가리키고 있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고 연구 자료에는 없었으나 공손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예로는 ‘한 분’이 있다. 아래 [예11]은 레이코가 와타나베에게 병원 생활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11] ST4: 「たとえば私はあるお医者にピアノを教えてるし、一人の患者は看護婦にフランス語を教えてるし、まあそういうことよね」(179-10)

TT4: ‘예를 들면 난 어떤 의사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어떤 환자는 간호사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고, 그런 식이야.’(200-11)

위에서 ‘어떤’은 부정관형사이며 모든 환자에 해당되고 구체적으로 환자가 누구인지 가리키지 않았으므로 공손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 4.1.6 군집성

[+군집성]은 ‘한 학생’, ‘각자’, ‘일원’, ‘그들’이 이에 해당된다. [-군집성]은 ‘한 사람’, ‘한 명’, ‘하나’, ‘한 분’, ‘혼자’, ‘한’, ‘어떤’, ‘아무’, ‘홀로’, ‘스스로’이다. 아래 [예12]는 미도리가 대학에서 포크송 동아리에 들어갔었던 이야기를 와타나베에게 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12] ST4: 「ある日私たち夜中の政治集会に出ることになって、女の子たちはみんな一人二十個ずつの夜食用のおにぎり作って持ってくることって言われたの」(61-14)

TT4: “어느 날 야간 정치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여자들에게 각자 야식용 주먹밥을 스무 개씩 만들어 오라는 거야.”(355-16)

위에서 ‘각자’는 포크송 동아리에 소속된 구성원 중 여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군집성을 갖는 표현이다. 아래 예문은 중학생인 고스케가 부모님을 따라 야반도주하다가 중간에 도망친 장면이다.

[예13] ST2: 自分一人が生きていくチャンスぐらいは見つけ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えた。(258-12)

TT2: 나 한 사람 살아갈 기회쯤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82-5)(1인칭 주인공 시점)

위에서 ‘한 사람’은 화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 ‘한 사람’에 ‘한 사람씩’처럼 ‘-씩’이 붙으면 군집성을 갖는다.

#### 4.1.7 분리성

[+분리성]은 ‘한 사람’, ‘한 명’, ‘한 학생’, ‘하나’, ‘한 분’, ‘혼자’, ‘한’, ‘어떤’, ‘각자’, ‘아무’, ‘홀로’, ‘스스로’가 있다. [-분리성]은 ‘그들’이 있으며 [+/-분리성]은 ‘일원’으로 분류되었다. 아래 예문은 고스케가 비틀스 영화를 보러 도쿄로 가는 장면이다.

[예14] ST2: 東京には友達と何度か行ったことがある。だが一人で行くのは初めてだった。(242-11)

TT2: 도쿄에는 친구와 몇 번 가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건 처음이었다.(265-18)(1인칭 주인공)

위에서 ‘혼자’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스케만 도쿄로 가기 때문에 공간적인 분리성을 갖는다. 아래 예문은 하루미가 사업을 시작하며 정보공학과 출신 학생 몇 명을 채용하고 진행했던 시도들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예15] ST2: 一人に一台ずつパソコンを与え、インターネットで何ができるかを考えさせた。(382-3)

TT2: 그들에게 컴퓨터를 한 대씩 내주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안해보게 했다.(413-20)(1인칭 주인공 시점)

위에서 ‘그들’은 [예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루미가 고용한 직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one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면서, 동시에 각각 분리되는 개념도 아니다.

이 밖에 아래 [예16]와 같이 ST가 TT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어휘를 덧붙인 ‘한 학생’이라는 표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예문은 와타나베가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다.

[예16] ST4: 彼らは入口近くのテーブルに座ってメニューを眺め、しばらくいろいろと検討していたが、やがて一人が注文をまとめ、アルバイトの女の子にそれを伝えた。(93-6)

TT4: 그들은 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아 메뉴를 바라보며 잠시 의논을 하더니 이윽고 한 학생이 주문을 정리하여 아르바이트 여학생에게 말했다. (106-1) (3인칭 관찰자 시점)

위에서 ‘한 학생’은 앞서 원문 p93 3번째 줄에 ‘학생 넷이 들어왔다’고 언급했으므로 굳이 사용 필요가 없으나 TT에

일부로 첨가하였다. 그리고 원문은 아르바이트가 학생이라는 언급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여자 애’를 ‘아르바이트 여학생’으로 번역했다. 이처럼 일본어에서 ‘한 사람’이 ‘学生’로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한국어에서는 ‘학생’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질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一人’을 의미적 자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一人’ 자질 분석 결과

一人	숫자성	거리감	의지	감정	공손성	군집성	분리성	BT 대응
한 사람	+	±	-	±	±	-	+	×
한 명	+	±	-	±	-	-	+	×
한	+	+	-	-	-	+	+	△
하나	+	+	-	-	-	-	+	-
한 분	+	+	-	-	+	-	+	+
혼자	±	±	±	±	-	-	+	+
한	+	+	-	-	-	-	+	+
어떤	±	+	-	-	-	-	+	+
각자	±	+	-	-	-	+	+	+
일원	-	+	-	-	+	+	±	+
그들	-	+	-	-	-	+	-	+
아무	-	+	-	-	-	-	+	+
홀로	±	×	±	+	-	-	+	+
스스로	±	×	+	-	-	-	+	+

‘一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누어보면 [+숫자성],[+거리감],[+의지],[+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4.2 ‘二人’ 표현에 대한 자질 분석

‘二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뉘보면 [+숫자성],[+거리감],[+명시성],[+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二人’는 ‘스스로’, ‘홀로’ 등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 성분이 없으므로 변별 자질 중 [±의지]는 제외시켰다. 반면 ‘쇼타와 고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대상이 각각 구체적인 명사로 표현된 경우를 [+명시성]으로 분류하였다.

### 4.2.1 명시성

[+명시성]는 ‘둘’,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가도와키는 그녀’, ‘가오루코’, ‘쇼타와 고헤이’, ‘우리 둘’을 들 수 있다. [-명시성]는 ‘두 사람’, ‘두 명’, ‘두’, ‘두 분’, ‘그들’, ‘너희’가 있으며 [±명시성]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가 해당된다. 아래 [예17]은 아쓰야, 쇼타, 고헤이 세 사람이 과거에서 온 편지를 읽고 혼란스러워 하는 장면이다.

[예17] ST2: ほかの二人も同様らしく、どちらも膝を抱えたままだ。(409-14)

TT2: 쇼타와 고헤이도 마찬가지로 두 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443-12)(3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쇼타와 고헤이’은 대상을 구체인 이름으로 명시화하였는데, 소설 속 상황은 아쓰야가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쇼타와 고헤이가 듣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누군지는 독자는 알 수 있으나 번역자가 일부로 명시화시킨 것이다. 아래 예문은 무카이가 원수를 갚고자하는 노부코를 말리는 대화 장면이다.

[예18] ST1: 「ふたりを殺したとなれば死刑になる可能性だって高い」(59-10)

TT1: “게다가 사람 두 명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73-2)

위에서 ‘두 명’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명시성을 갖지 않는다.

#### 4.2.2 감정

[+감정]은 서로 친밀한 느낌이 있는 표현인 ‘우리 둘’, ‘우리가 있다. [-감정]은 ‘두 사람’, ‘두 명’, ‘두’, ‘두 분’,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가도와키는 그녀’, ‘부모’, ‘그들’, ‘가오루코’, ‘쇼타와 고헤이’,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가 해당되며 [±감정]은 ‘둘’이 있다. 아래 [예19]는 와타나베가 산에서 산책하다가 나오코에게 고백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19] ST4: 「それで、もしよかったら二人で暮さないか?」(166-3)

TT4: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살지 않을래?”(464-16)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친한 관계이므로 ‘우리 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음 예문은 무카이 가게에 마에하라가 사키를 처음 데려온 장면이다.

[예20] ST1: ふたりの前に酒を置くと、話の邪魔にならないように前原たちから少し離れた。(77-8)

TT1: 두 사람 앞에 술을 내놓고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멀리 떨어졌다.(94-4)(1인칭주인공 시점)

위에서 ‘두 사람’은 가게 손님이지만 사키는 그 가게에 처음 온 손님이므로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질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二人’을 의미적 자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二人’ 자질 분석 결과

二人	숫자성	거리감	명시성	감정	공손성	군집성	분리성	BT 대응
둘	+	±	+	±	-	-	-	×
두 사람	+	±	-	-	-	-	-	×
두 명	+	±	-	-	-	-	-	×
두	+	±	-	-	-	-	-	+

두 분	+	+	-	-	+	-	-	+
우리 둘	+	-	+	+	-	+	-	+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	+	+	-	-	-	-	+
가도와키는 그녀	-	+	+	-	-	-	+	+
부모	±	+	±	-	+	-	-	+
그들	-	±	-	-	-	+	-	+
가오루코	-	-	+	-	-	-	+	+
쇼타와 고헤이	±	-	+	-	-	-	-	+
아버지(와) 어머니	±	-	±	-	+	-	-	+
너희	-	-	-	-	-	+	-	+
우리	-	-	±	+	-	+	-	+

‘二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누어보면 [+숫자성],[+거리감],[+명시성],[+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하였다.

##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와 일본어 표현 중 어휘적으로 대응관계를 이루는 수 관련 표현에 대해 실제로 번역된 결과물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소설에서 ‘一人’, ‘二人’이 각각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표현을 분류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는 TT결과물이 서로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형태적 특징이 아닌 실제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양상을 살펴보았다. ‘一人’의 의미적 자질을 [+숫자성],[+거리감],[+의지],[+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석하였으며, ‘二人’의 의미적 자질은 [+숫자성],[+거리감],[+명시성],[+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물을 통해 번역은 실제 언어 사용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대조로 설명할 수 없는 용역이 존재하고, 반드시 어휘마다 그 범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一人’은 사전적 의미인 ‘한 사람’, ‘한 명’ 외에도 ‘아무’, ‘어떤’, ‘한’, ‘일원’과 같이 부정사가 쓰기도 하고, ‘혼자’, ‘하나’, ‘홀로’, ‘스스로’, ‘각자’, ‘그들’과 같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二人’은 ‘두 사람’, ‘두 명’ 외에도 ‘두’와 같이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 ‘우리’, ‘둘’, ‘우리 둘’,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 ‘두 분’, ‘그들’, ‘너희’와 같은 어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二人’은 인물을 구체화하여 ‘쇼타와 고헤이’, ‘그녀와 가오루코’, ‘에토와 그녀’처럼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번역에서는 숫자라 할지라도 단순히 한자어와 고유어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어권 학습자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며, 번역 교육 또한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과정에서 번역자는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어휘장(선택지)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진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번역자는 이러한 어휘장을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물은 일본어권 번역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으로 소설 4권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연구 대상을 더 확장시키면 보다 다양한 연구 결과

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후행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범모(2018), 의미론, 한국문화사.
- 김혜영(2009),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 노명현(2012), 의미론개관, 한국문화사.
- 박여성(2013), 기능주의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 신현숙(2012), 의미와 의미 분석, 푸른세상.
- 윤성우·이향(2013), 번역학과 번역철학,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이혜승(2018), 통역과 번역의 이해, 신아사.
- 임지룡·김동환(2010), 의미론의 이해(원저: Understanding Semantics.(2002), Sebastian Löbner), 한국문화사.
- 정연일·남원준(2006)번역학 입문(원저: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Theories & Applications.(2001), Jeremy Munday),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호정(2001), 번역학에 있어서의 통합모델-해석이론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3, 243-266
- 정호정(2007),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 조의연(2015), “목표언어 중심의 등가적 번역전략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번역학연구』 16(1), 145-166.
- 최호철(2013), 한국어 단어의 의미구조와 의미관계 연구, 한국문화사.
- 今井邦彦(2015), 言語理論としての語用論, 開拓社
- 武田珂代子(2010), 翻訳理論の探求(원저: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Pym, A(2009), New York: Routledge), 東京: みすず書房.
- 鳥飼玖美子(2013), よくわかる翻訳通訳学, ミネルヴァ書房.
- 松本曜(1991), 日本語類別詞の意味構造と体系 : 原型意味論による分析 The Semantic Structures and System of Japanese Classifiers, 『言語研究』99, 82-106.

## 〈토론〉 “일한 번역문에 나타난 수(數) 관련 표현 연구 -‘一人’ ‘二人’의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문희진(아이치가쿠인대학교)

이 발표는 일한 번역문 즉 일본 문학 작품(4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에서 나타난 ‘인간성 수(數) 표현’의 어휘를 중심으로 도착텍스트(TT)에 나타난 번역·표현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련된 수(數) 표현의 번역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빈도수가 많게 번역·표현된 ‘一人’ ‘二人’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국어로 번역된 표현을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모어 화자의 번역 표현에 대한 자질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一人’ ‘二人’와 관련된 번역 종류를 분류한 수(數) 표현의 어휘장(선택지)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일본어권 번역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 점도 의의 깊은 연구라 생각합니다.

우선 혼다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二人’의 표현 번역 양상이 ‘16가지’라고 두 군데에 표시하셨는데 ‘15가지’ 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15가지’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신 인기있는 일본 문학작품 4종류 중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외에는 미스터리한 작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가 다른 작품을 같이 분석한 이유는 작품의 장르와 관계없이 ‘一人’ ‘二人’의 번역 표현 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작품의 장르에 따라 수(數) 표현의 번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셋째 일본 문학 소설 4작품의 ‘一人’ ‘二人’에 대한 한국어 번역 조사 결과를 표로 수치화하여 명시해 주시면 더욱더 알기 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질 분석 결과인 〈표1〉과 〈표2〉에 대한 의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신 학회와 연구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독-한 번역에서 나타난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

김하나(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에서 관사와 대명사가 자주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어에서 관사에 해당하는 한정사(관형사)가 없어도 문맥상 의미가 통하고 한국어가 고맥락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 한국어 ST에 한정사가 없다고 그것을 생략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독일어에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사용은 문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생략을 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독-한 번역 텍스트에서 어떤 관사와 대명사가 생략이 되었고 어떤 것이 번역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아동문학 소설책이 선정되었다. ST는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이고 TT는 (프란치스카 비어만 글·그림) 김정연 옮김 『책 먹는 여우』이다. 독일어 문법에서 필수인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한국어로 번역 되면서 생략된 문장들을 비교 분석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어권 학습자를 위한 번역전략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독일어의 정관사/부정관사와 한국어의 한정사/비한정사

독일어에는 큰 범주로 두가지의 관사가 있다. 한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der(남성), die(여성), das(중성), die (복수)’ 그리고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부정관사 ‘ein(남성), eine(여성), ein(중성)’ 하고 부정관사의 복수형에 해당하는 무관사 ‘ø’가 있다. 정관사와 부정관사는 명사의 성, 수, 격을 표시해준다. 한국어와 달리 독일어에서는 관사를 생략 할 수 없다. 한국어에는 한정성을 나타내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 그리고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수관형사 ‘한’ 등 이 있다.

1) Der bestimmte Artikel - 정관사

	Singular - 단수			Plural - 복수		
	Maskulinum - 남성	Femininum - 여성	Neutrum - 중성	Maskulinum - 남성	Femininum - 여성	Neutrum - 중성
Nominativ - 1격	der	die	das	die		
Genitiv - 2격	des	der	des	der		

Dativ - 3격	dem	der	dem	den
Akkusativ - 4격	den	die	das	die

## 2) Der unbestimmte Artikel - 부정관사; der Nullartikel - 무관사

	Singular - 단수			Plural - 복수		
	Maskulinum - 남성	Femininum - 여성	Neutrum - 중성	Maskulinum - 남성	Femininum - 여성	Neutrum - 중성
Nominativ - 1격	ein	eine	ein	∅		
Genitiv - 2격	eines	einer	eines	∅		
Dativ - 3격	einem	einer	einem	∅		
Akkusativ - 4격	einen	eine	ein	∅		

## 3. 번역 양상 - 독일어의 정관사/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

### 정관사 번역 양상

ST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 소설에는 정관사가 총 121개 나왔고 그 중에 3개를 TT 번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소설에서 독일어 정관사가 한국어로 번역된 숫자를 통계로 보면 2.48%이며 97.52% 이상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

ST	TT
Man hatte den kleinen Fuchs erkannt.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강도가 여우 아저씨란 걸 알아보았던 거예요.
Der Fuchs war ein großartiger Schriftsteller!	그 여우, 굉장한 작가인걸!
..., sondern das Buch komplett fotokopiert.	그 책을 전부 복사했던 거지요.

### 부정관사 번역 양상

ST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 소설에는 부정관사가 총 45개 나왔고 그 중에 14개를 TT 번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소설에서 독일어 부정관사가 한국어로 번역된 숫자를 통계로 보면 31.11%이다.

- : 23번은 한국어 번역에서 부정관사가 필요 없어서 생략되었고

X : 7번은 부정관사와 쓰인 전체 단어나 문장이 생략되거나 바뀐 경우이다

ST	TT
einer Prise	한
einem Tisch	하나
einer Matratze	하나
einem Stuhl	하나
ein Haus	한
an der einen oder anderen Probeseite	(이것 저것 몇 쪽)
eine Weile	꽤 오랫동안
ein Buch	한
eines Morgens	어느 날 아침
ein paar Bücher	몇 권
eins	그런
ein paar Seiten	종이 몇 조각
einer der berühmtesten Schriftsteller	가장 유명한 작가
ein Tütchen	한
ein Päckchen	한

ST	TT
eines (ein Buch)	—
einem Pfandhaus	—
ein Fuchs	—
eine Papierwolke	—
nach einiger Zeit	—
eine Ausgabe	—
ein Salzfläschchen	—
eine Pfeffermühle	—
einem Seufzer	—
einer Lage	—
einen Plan	—
ein Bürger	—
eine Idee	—
ein Plätzchen	—
ein Schinken	—
ein Assistent	—
ein Schriftsteller	—
ein Buch	—
einer Buchhandlung	—
einen Verlag	—
ein Kassenknüller	—
ein Millionär	—
ein Geheimnis	—

ST	TT
einem Ruck	X
ein Überfall	X
kein Bücherräuberprofi	X
eines Gesetzeshüters	X
ein Pech	X
keine Tage	X
einen Umweg	X

#### 4. 독한 번역과정에서 TT에서 정관사/부정관사의 생략된 예시들을 분석

ST는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 소설에서 한 문장이다. TT0는 독일어 모국어화자의 번역 예시이며 TT는 전문 번역가의 번역이다.

(1) ST: Der kleine Herr Fuchs mochte sehr gerne Bücher.

TT<sub>0</sub>: 그 작은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

TT: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

한국어 번역 TT에서 ‘der - 그’ 정관사와 ‘kleine - 작은’ 형용사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어에서는 그 특정한 작은 여우 아저씨이고 ‘der’를 생략하게 되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에서도 ‘그’가 들어가야 문장의 번역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전문번역가는 ‘그’ 정관사 뿐만 아니라 ‘작은’이라는 형용사 까지 생략을 했다. 문맥상 한국어에서는 그 작은 여우 아저씨라는 것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문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2) ST: Tatsächlich mochte der kleine Herr Fuchs Bücher so gerne, dass er, immer wenn er eines zu Ende gelesen hatte, dasselbe mit einer Prise Salz und etwas Pfeffer verspeiste.

TT: 좋아해도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소금 한 줌 툭툭, 후추 조금 툭툭 뿌려 꿀꺽 먹어치웠지요.

der, kleine, eines, dasselbe	→	생략
mit einer Prise Salz	→	소금 한 줌
X	→	툭툭, 꿀꺽 의성어 추가됨

(3) ST: Mit dieser Vorliebe stillte er also nicht nur sein Bedürfnis nach Bildung, sondern auch seinen Hunger. Und der war riesengroß.

TT: 이렇게 여우 아저씨는 책에서 지식도 얻고 허기도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워낙 식성이 좋아서 먹어도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dieser, sein, seinen, der	→	생략
---------------------------	---	----

(4) ST: Drei Mahlzeiten am Tag brauchte der kleine Herr Fuchs mindestens und Bücher sind ganz schön teuer.

TT<sub>0</sub>: 그 작은 여우 아저씨는 하루에 최소 세 번은 식사로 책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책값이 워낙에 비싸서.

TT: 하루에 적어도 세 끼는 먹어야 했는데, 책값이 좀 비싼가요.

한국어 번역 TT에서 ‘der kleine Herr Fuchs - 그 작은 여우 아저씨’가 생략이 되었다.

(5) ST: Auf Dauer war das kleine Portemonnaie vom kleinen Herrn Fuchs diesen großen Geldaufwendungen nicht gewachsen. Er hatte sogar schon seine ganzen Möbel bei einem Pfandhaus in Zahlung gegeben und besaß mittlerweile nichts mehr außer einem Tisch, einer ollen Matratze und einem klapprigen Stuhl.

TT: 가난뱅이라 책을 맘껏 살 수 없는 여우 아저씨는 벌써 가구들을 모두 전당포에 맡겨 버렸어요. 전당포는 물건을 맡아 두고 돈을 꾸어 주는 곳이지요. 이제 아저씨에게 남은 거라고는 책상 하나, 낡은 침대 하나, 간닥거리는 의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das kleine Portemonnaie	→	‘그 작은 지갑’ ⇒ 가난뱅이
das, vom, kleinen, diesen, seine, einem	→	생략
einem Tisch	→	책상 하나
einer ollen Matratze	→	낡은 침대 하나 (매트리스 ⇒ 침대)
einem klapprigen Stuhl	→	간닥거리는 의자 하나
추가설명	→	전당포는 물건을 맡아 두고 돈을 꾸어 주는 곳이지요.

(6) ST: Doch auch dieses Geld war schnell wieder in neues Lesefutter investiert. Und je mehr Bücher der kleine Herr Fuchs in sich hineinstopfte, desto größer wurde sein Appetit.

TT: 그런데 이걸 어찌죠? 뱃속에 책을 쏘옥썩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먹고 싶은 마음도 쏘옥썩 더 자라났어요.

Doch auch dieses Geld war schnell wieder in neues Lesefutter investiert.	→	전체 문장 생략
추가된 문장: 그런데 이걸 어찌죠?		
X	→	쏘옥썩, 쏘옥썩 의성어 추가됨

(7) ST: Da sein Magen mittlerweile einfach ständig knurrte, konnte sich der kleine Herr Fuchs auch aufs Lesen nicht mehr konzentrieren.

TT: 여우 아저씨는 밤낮없이 배가 고팠고, 힘이 없어 책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sein, der, kleine	→	소유대명사, 정관사, 형용사 생략
ständig	→	지속적으로/끊임없이 ⇒ 밤낮없이
aufs Lesen nicht mehr konzentrieren		
→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없었다		
⇒ 힘이 없어 책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8) ST: Jede Zeile musste er zweimal lesen und das war ganz schön anstrengend.

TT: 눈에 힘을 주어 두 번씩은 읽어야 했는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요.

Jede Zeile	→	생략
------------	---	----

er	→	'그 (여우 아버지)' 생략
das	→	그건
(추가 된 내용)	→	눈에 힘을 주어

(9) ST: Doch der kleine Herr Fuchs war ein Fuchs und beobachtete schon seit Langem ein Haus, in dem unglaublich viele Bücher in Regalen standen.

TT: 그렇지만 아버씨가 누구인가? 피쟁이로 유명한 여우잖아요! 어저씨는 벌써 오래 전부터 한 건물을 눈여겨보아 두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책장들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der	→	정관사 생략
ein, ein	→	부정관사 생략
kleine	→	형용사 생략

(10) ST: Es waren noch mehr als in seinem Lieblingsdelikatessladen, der „Buchhandlung an der Ecke“.

TT: 아버씨가 어릴 적부터 단골로 다녔던 길모퉁이서점보다 열 배 백 배 아니 천 배나 많은 책이 있었어요.

seinem	→	소유대명사 생략
der	→	정관사 생략

(11) ST: Schon während er sich eben diesem Haus näherte, stieg ihm eine köstliche Papierwolke in die Nase.

TT: 그 건물에선 구수한 종이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diesem	→	지시대명사 생략
eine	→	부정관사 생략
köstliche	→	형용사 생략
die	→	정관사 생략

## 5. TT 결과를 문장 단위로 분석

## 6. 결론

독일어의 정관사 부정관사 뿐만 아니라 형용사와, 소유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많이 생략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 연구의 분석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어휘 성분과 문장 단위 뿐만 아니라 텍스트 단위로 넓혀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거 같다.

■ 참고문헌 ■

- 안인경 (2014). 한정성-불확실성-제 2의 창작 문학텍스트의 한,독 번역에서 나타나는 예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62(0), 197-222.
- 안인경 (2015). 번역 가독성 개념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74, 147-168.
- 양용준 (2013). 영어와 한국어의 한정사 구조 비교. 2013년 21세기영어영문학회·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272-282.
- 허남영 ( 2010 ). 교육학 :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교육 -한국어의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독일어 대응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49), 283-304.
- Biermann, F. (2015) 『Herr Fuchs mag Bücher』, mixtvision Verlag.
- Imo, W. (2016) 『Grammatik, Eine Einführung』, Metzler Verlag.
- 비어만, 프란치스카 (2020) 『책 먹는 여우』, 김정연 옮김, 김영사.
- 허용 (202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의 이해』, 소통.

## 〈토론〉 “독-한 번역에서 나타난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에 대한 토론문

유미희(고려대학교)

독일어 문장에서 관사가 들어있지 않는 문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독일어에서 관사의 해석은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그간 언어학적 측면에서 독일어 관사의 용법이나 한정성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로 관사의 용법이나 의미를 일괄적으로 다루거나 독일어 문장 안에서의 각각의 해석 혹은 한국어로의 번역, 한국어와의 비교 등이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서 독일어를 접하는 외국인에게는 특히 번역의 경우 가장 어려운 문법 영역이 관사 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토론하게 될 발표자의 논문인 ‘독-한 번역에서 나타난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의 경우에도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과도 관련된 독일어 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는 이 논문은 전체 원문 독일어 텍스트에 들어 있는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것이 번역문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독일어 관사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독일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관사라는 범주 안에서 한 권의 소설책을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양을 떠나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논문의 경우에서도 이 체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문 2장 앞부분에서는 범주적으로 두 종류의 관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어 뒷부분에서는 독일어 관사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토론자로서 독일어 관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보완, 예를 들어 관사의 기능면이나 사용면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먼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발표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논문에서 ST으로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를 선택했고 TT으로는 『책 먹는 여우』(김경연 옮김)를 선택했는데 독일어 관사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면서 이 소설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2장에서 보면 관사의 정의나 범위를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7쪽의 (3) 분석에서 dieser(생략)이라든지, 9쪽의 (8) 분석의 경우 das(그건<...>), 10쪽의 (11) diesem(지시대명사 생략) 등으로 관사 분석과 동시에 대명사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문법에서도 ‘관사’와 ‘대명사’를 그 의미상, 구조상 공통점으로 동일한 품사류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3장에서 정관사 번역 양상의 경우에는 ST나 TT 모두 전체 문장을 제시해 줘서 그 문장 안에서의 비교 분석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부정관사 번역 양상의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제시하지 않고 어떤 부정관사가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혹은 번역이 생략되었는지를 단순히 언급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역 양상 분석 결과를 통해 통계상으로 정관사의 경우는 97% 이상이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된 반면에 부정관사의 경우 30% 이상이 번역이 되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다른 (독일어 소설)책의 관사 번역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를 통해 어떤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신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위한 기고

ZHAO XIN(한국외국어대학교)

### 1. 들어가기

인간을 둘러싼 수많은 일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인간들은 새로운 정치 세상을 만들고 싶을 때 새로운 정치언어부터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 그리고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조치의 진행됨에 따라 노동 계급, 인민 정권, 사회주의 건설 등 새로운 정치적 표현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언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에서 사용되는 정치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습관적으로 굳어진 것이므로 그 표현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의 정치언어도 ‘정치적 의미’가 상이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중언어사전에서의 정치언어는 ‘어의 signification’ 차원의 등가에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정치언어의 번역은 반드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치언어 번역에서 양대 축을 이루는 것은 출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로 함) 분석과 도착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로 함)이고 물론 번역과정에서 ST와 TT 사이에는 정치적 전환 현상이 일어난다. ST의 정치언어를 어떻게 TT로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번역자의 머리 속에는 여러 표현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다. 표현들 사이의 각축전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며 벌이는 심각한 이념의 각축전이다(신지영, 2018: 15).

링컨이 1863년에 행한 게티스버그 연설에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구절이 있듯이, ‘people’은 민주주의의 주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남북분단 전에는 ‘인민’으로 번역되었으나 이후에는 ‘국민’으로 번역되었다<sup>1)</sup>. 이로부터 정치적 작업에서 이런 주권자의 호칭과 그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주권자의 호칭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만으로도 강한 호소 기능이 자리하게 된다. 특히 호소 텍스트에 편입된 연설문에서 주권자의 호칭은 청자의 감성에 호소하여 원하는 바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국민’과 ‘인민’, 중국에서 ‘国民’과 ‘人民’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한중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국민’과 ‘人民’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중 정치 연설문과 중한 정치 연설문은 이미 출판된 『한국의 연설문 베스트』(2004),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2003), 『중국의 연설문 베스트』(2016)에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 품질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 그간 연구사에서 밝혀진 대로 해방 직후 ‘인민’은 특별히 어떤 편향의 정치색을 지닌 용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 이후 “좌파들의 경우는 ‘인민’을 포괄적 의미가 아닌 다소 제한된 의미로 사용한다. 임화, 박헌영 등 좌파 이론가들은 ‘인민’을 노동자나 농민, 기타 중간층이나 지식계급 등을 포섭하는 의미로, 피착취 사회계급이라는 사회계급적인 요소가 보다 더 많이 내포된 개념으로 본다”(박지영, 2013: 64). 즉 ‘인민’은 차별화하는 정치화된 개념으로 변질되어 가는 반면에 국가에 일체감이 부여되는 ‘국민’이

## 2. 정치적 이데올로기어의 특성과 번역

정치언어의 주체는 정치인이다. 정치언어는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확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서 정치 레토릭, 정치선전, 정치연설, 정치주장이나 명령 등에서 나타난다. “정치언어는 정치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뜻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정치적 어휘를 뜻한다”(김종영, 2004: 207-208). 전자는 특별한 정치적 어휘에만 제한되지 않는 광범위하다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행위는 공식적인 정치제도나 조직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 정치언어는 정치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고유의 어휘로 지정된다.

정치적 어휘는 크게 이데올로기어, 기관어, 정치 영역의 전문어로 구분된다(김종영, 2004: 208-211). 이데올로기어<sup>2)</sup>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흔히 언어 표현에 반영되기도 하고 이를 이데올로기어로 부른다. 이데올로기어는 권력자의 현실 세계 인식에 기초한 권력의지의 반영물로서 그 속에 정치적 신조나 원칙이 관철된다. 이데올로기어에는 그 시대의 혼이 담길 때 그 만큼 호소력 있어서 국가 체제 강화와 구성원의 공속감 유지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어는 감성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설명적 기능보다 정서적 기능이 더 강조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권력관계에만 치중하고 세상의 변화나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이데올로기어는 정치혐오증을 불러일으킨다(박성준, 2015: 24-25). 그러나 김동조(2018: 47)가 언급했듯이 “커뮤니케이션 윤리에 맞는 언어의 보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언어의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언어의 한 부류인 이데올로기어의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다. 체제와 이해방식의 차이가 따라 상이한 권력주체가 동일한 이데올로기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이것은 정치의 본질과 연관된다.

김한식(2010)에서는 각 언론사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용어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의 개입이 무조건 바람직하거나 특정된 적절한 방식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충실한 번역’과 ‘자유로운 번역’ 사이의 원천적인 논란이다. 일상적이지 않고 고유한 개념, 감정, 태도가 깃들여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어의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불완전하지만 번역자는 번역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Nord(1997, 60)는 ‘번역브리프(translation briefs)’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필요성을 강조한다. “번역브리프란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생산하기 앞서 대상독자 특성과 번역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도착텍스트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총합을 가리킨다”(정호정, 2016: 23). 번역브리프에 흔히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된다.

- 1) 의도된 텍스트 기능
- 2) 도착텍스트 독자
- 3) 텍스트 수용의 예상 시점 및 장소
- 4) 텍스트가 전달될 매체
- 5) 텍스트 생산 또는 수용의 이유 혹은 동기

위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번역자는 ST의 성격을 정하고 나아가 이를 번역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및 방법을 세운다. Nord가 주장하는 ‘번역브리프’가 오늘날의 정치 연설문에 포함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어의 번역에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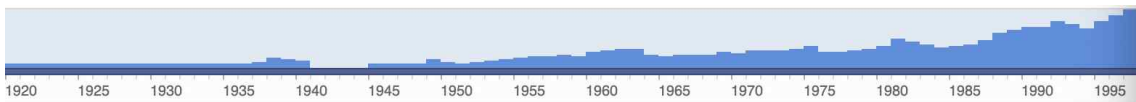
2) 양동안(2020, 19)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해석·평가하고 인간과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원론적 지침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복합체”로 정의되었다. 이데올로기에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관념뿐만 아니라 주관적 관념까지 섞여 있으며 이에 가장 가까운 동양어는 사상이나 세계관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제 연설문은 명시적으로 ST 수용자를 겨냥한 호소 텍스트이므로 번역브리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번역브리프와 용인성 관련된 내용을 보충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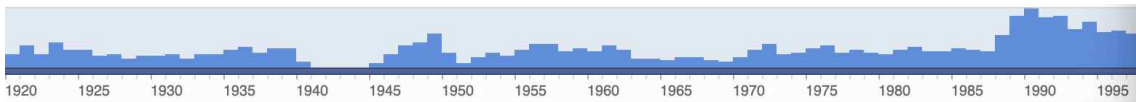
### 3. ‘국민’과 ‘인민’ 및 ‘国民’과 ‘人民’의 개념 변화

#### 3.1 한국어에서의 ‘국민’과 ‘인민’의 개념 변화

한국어에서 ‘국민’과 ‘인민’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낱말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과 ‘인민’의 실현 빈도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경험과 관련 있다. 이러한 사실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sup>3)</sup>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곳에 ‘국민’과 ‘인민’을 넣어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표1〉 연도별 신문에 나타나는 ‘국민’



〈표2〉 연도별 신문에 나타나는 ‘인민’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 주민 집단 또는 그 출신을 호칭하는 ‘국민’과 ‘인민’은 특별히 정치적 색깔을 지닌 용어가 아니며 특히 ‘인민’이 ‘국민’보다 실현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치상황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지면서 ‘국민’과 ‘인민’은 정치적 색깔을 지닌 용어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좌우대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익에서는 ‘국민’, 좌익에서는 ‘인민’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드러났다(김성보, 2009: 72 참조).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민’을 선호하는 반면에 민주주의자들은 국가에 유용하게 종속되는 ‘국민’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좌우대립은 점점 심화되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좌익세력이 크게 쇠퇴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도 한국의 정치담론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정부와 교육기관들이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그에 반대할 것만을 교육·홍보했으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양동안, 2011: 232).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인민’은 사회주의 언어 내지는 공산주의 언어로 정리되어 점차 ‘혐오스러운’이라는 부수의미 connotation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국민’은 ‘인민’을 대신하는 주도적 이데올로기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국민’과 ‘인민’을 구분짓는 것은 분명히 역사와 이데올로기와 관련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 수립 후<sup>4)</sup> 과거 적대 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하면서<sup>5)</sup> 한국사회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정의되면서 주요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국민’과 ‘인민’ 그리고 ‘国民’과 ‘人民’의 정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중

3)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2011년에 정식 서비스로 오픈되었고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의 신문을 스캔해 검색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뉴스 아카이브이다.

4) 한국은 유고슬라비아(1989), 체코슬로바키아(1990), 불가리아(1990), 루마니아(1990), 알바니아(1991) 등과 잇달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중국과는 1992년 8월 수교하였다. 또 베트남과는 1992년 12월에 수교를 맺었다.

5)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가 ‘인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냉전 때 독일도 서독 국민, 동독 인민 등으로 표기하고 소련 인민, 중국 인민, 폴란드 인민, 쿠바 인민, 베트남 인민 등으로 표현한다.

수교 후 양국에서 발행된 사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와 그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그 표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표3〉 한국9 사전에서 본 ‘국민’과 ‘인민’의 정의

년대	사전명	사전적 정의
1999	『국어대사전』, 남광우 외	국민: 동일한 통치권 밑에 결합되어 국가를 조직한 인민. 같은 국적을 가진 인민. 인민: 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국민. 민인. 시민. 백성. the people. ②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2004	『국어대사전』, 이희승	국민: ① 동일한 통치권 밑에 결합되어 국가를 조직한 인민. 인민: 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백성. 민인 ②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2011	『동아 새국어사전』, 이기문	국민: ①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민. 인민. 인민: 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국민. 민인. 백성. ② 공화국의 구성원인 자연인, 또는 군주국 따위의 피치자.
202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인민: ①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를 이른다. ②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대표적인 한국어사전 네 곳에 실려있는 ‘국민’의 정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자질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한 나라의 통치권’ 자질이 세 곳이나 담겨있다. 이에 반해서 ‘인민’은 ‘국가’보다도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도드라진 자질이 ‘피지배’ 또는 ‘피치자’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국민’이 가지 중립적인 의미를 품고 있음에 반해서 ‘인민’은 통치와 피치의 개념이 들어있는 이데올로기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국민’과 ‘인민’이 구분되어 있듯이 중국어에서도 ‘国民’과 ‘人民’이 존재한다. 중국사회에서 ‘人民’은 정치권력과 결합된 정치적 주체로 간주되어 시기에 따라 계속 새로이 정의되었다. 왜냐하면 ‘人民’은 내부의 관료주의나 봉건주의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국주의와도 투쟁하였기에 ‘人民’의 개념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人民’이라는 개념은 역사 발전 속에서 계속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人民’은 사회주의의 주체이며 ‘애국’의 주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장윤미, 2015: 98). 즉 ‘人民’은 과거의 사회주의 혁명에 박혀있는 개념이 아니라 개혁시대에도 여전히 중국 체제의 속성을 증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집권당인 공산당은 ‘人民’과 결합한 모델로 사회변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공산당은 ‘人民’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고 ‘人民’의 지지로 기반으로 한다. 한편 ‘人民’은 공산당이 ‘사회주의’의 목표를 실현하는 조력자이며 공산당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어서 중국에서 발행된 사전을 중심으로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国民’과 ‘人民’의 정의를 규명해 보자.

3.2 중국어에서의 ‘국민’과 ‘인민’의 개념 변화

〈표4〉 중국 사전에서 본 ‘国民’과 ‘人民’의 정의

년대	사전명	사전적 정의
2001	『新华字典』, 第三版	国民: ① 公民 ② 国人; 本国的人民 人民: 百姓; 以劳动群众为主体的社会基本成员

2002	『现代汉语词典』, 增补版	国民: 具有某国国籍的人就是这个国家的国民 人民: 以劳动群众为主体的社会基本成员
2016	『现代汉语词典』, 第七版	国民: 具有某国国籍的人就是这个国家的国民 人民: 以劳动群众为主体的社会基本成员
2018	『现代汉语规范词典』, 第三版	国民: 具有某国国籍的人就是这个国家的国民 人民: 创造历史、推动人类社会进步的所有社会基本成员的总称

2001년에 발행된 『新华字典』에 ‘国民’은 ‘公民’으로 정의된다. ‘公民’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면서 국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적 개념으로 한국어의 ‘국민’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어의 ‘国民’과 ‘公民’ 그리고 한국어의 ‘국민’은 의미적 등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의 ‘国民’은 역시 국가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한국어에서의 ‘국민’ 개념과 유사하게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짐으로써 그 국가의 ‘国民’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2002년과 2016년에 발행된 『现代汉语词典』에 등장하는 ‘人民’은 ‘劳动群众을 주체로 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의된다. 또한 2018년 발행된 『现代汉语规范词典』에서 ‘人民’은 ‘역사와 인류사회를 발전시키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어휘적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어 ‘人民’ 개념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이나 민족 등 훨씬 다양한 집단의 구성을 포함하는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개념이 된 것이다. 더불어 국가의 소멸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적 개념도 담지고 있다(이나미, 2005: 84 참조).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국민’과 중국어의 ‘国民’은 국가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개인의 ‘국적’이 그 국가의 ‘국민’ 또는 ‘国民’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국민’은 국가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법적 개념이고 중국에서 ‘国民’ 대신에 ‘公民’이 법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의 ‘인민’과 중국어의 ‘人民’은 상이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는 낱말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국에서 계급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국민’의 부분집합으로서 ‘피지배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어로 간주된다. 반면에 중국에서 ‘人民’은 ‘劳动群众을 주체로 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최근에 국가를 넘어서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한중 양국에서 사용되는 ‘국민’과 ‘인민’ 그리고 ‘国民’, ‘人民’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만 고찰해도 그 부수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한중 양국의 정치 연설문에서 이런 이데올로기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살펴보자.

#### 4. ‘국민’과 ‘人民’의 번역 분석

외교관계나 국제회의에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다른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 호명할 경우 국가 체제나 주체와 상관없이 자국의 이데올로기어를 적용시킨다. 이것은 언어 습관의 일종으로 인간의 심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정치 연설문에서 자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모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 대신 ‘人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어서 중국 정치 연설문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人民’의 한국어 번역을 살펴보자.

ST 1: 中国人民热爱和平, 中国的发展需要和平.

TT 1: 중국 국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중국이 발전하는 데에도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00)

ST 2: 韩国人民也在致力于开创‘国民幸福时代’、创造‘第二汉江奇迹’的韩国梦。

TT 2: 한국 국민도 역시 국민 행복시대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의 꿈을 창조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명연설문 베스트』, 29)

ST 1과 ST 2에 제시된 것처럼 중국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한국과 중국의 구성원은 모두 ‘人民’으로 지칭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의 주도적 지위와 상관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인민’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T 1나 ST 2에 나타나는 ‘人民’은 ‘인민’ 대신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인민’은 한국사회에서 혐오스러운 용어로 기피되어 그 용어에 덧씌워진 정서에 민감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김성보, 2009: 76-77). 한편 ‘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어가 현재 한국의 정치적 배경에 부합하기 때문에 번역자는 ‘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어를 선택하였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번역에 있어서도 자국의 이데올로기어가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ST 3: 中韩建交10年来两国关系取得显著成果, 是两国人民共同努力的结果。

TT 3: 중한 양국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0년 동안 양국 관계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국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228)

ST 4: 长期以来, 中美两国人民一直相互抱有浓厚的兴趣和友好的感情。

TT 4: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미국 양국의 국민들은 줄곧 서로에 대해 깊은 흥미와 우호적인 감정을 지녀왔습니다. (『중국어 명연설문 베스트』, 101)

ST 5: 从这一刻起, 中葡两国人民的友谊和两国的友好合作也将新的起点上向前发展。

TT 5: 지금부터 중국과 포르투갈 양국 인민의 우의와 양국의 우호협력 또한 새로운 기점상 앞으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중국어 명연설문 베스트』, 113)

ST 3과 ST 5에 제시된 것처럼 중국이 포함된 두 국가의 구성원은 중국 정치 연설문에는 모두 ‘人民’으로 호명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의 주도적 지위와 상관있다. ST 3이나 ST 4에 나타나는 ‘中韩人民’과 ‘中美人民’은 ‘인민’ 대신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주체를 호명함에 있어서 ‘인민’이라는 이데올로기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TT 5에서는 ‘中葡两国人民’을 ‘중국과 포르투갈 양국 인민’으로 번역되었다. 그야말로 번역자는 치열한 좌익대결의 무대에 살고 있는 TT 수용자가 ‘인민’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T 수용자의 용인성을 고려하면 TT 5의 ‘인민’은 ‘국민’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ST 6: 我谨代表中国政府和人民, 热烈祝贺可持续发展世界首脑会议的召开, 并衷心感谢南非政府和人民为此次会议所作的努力。

TT 6: 저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국민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06)

ST 7: 中国人民欣赏美国人民的开拓进取精神, 钦佩美国人民在建设国家中取得的骄人业绩。

TT 7: 중국인은 미국인의 진취적인 정신을 좋아하고, 미국 국민들이 국가를 건설하면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업적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문 베스트』, 101)

자국의 이데올로기어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함으로 중국 연설문에서 다른 국가의 구성원을 역시 ‘人民’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ST 7에 나타나는 ‘中国人民’은 ‘중국인’으로, 같은 문맥에서 미국 구성원을 지칭함에 있어서 ‘美国人民’은 각기 ‘미국인’과 ‘미국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ST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어는 TT로 반드시 이데올로기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中国人民’과 ‘美国人民’을 이데올로기어인 ‘중국 인민’이나 ‘미국 인민’ 또는 일반 용어인 ‘중국인’이나 ‘미국인’으로 옮기는 것은 번역자의 몫이다. 하지만 동일한 문맥에서 ‘美国人民’을 ‘미국인’과 ‘미국 국민’으로 옮기는 것은 문법의 교란뿐만 아니라 인식의 혼란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번역자를 통일성 있게 번역하여야 한다.

ST 8: 中国人民愿与亚洲各国人民一道, 携手共创新世纪亚洲的美好未来。

TT 8: 중국 국민은 아시아 각국 국민들과 함께 21세기 아시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79)

ST 9: 伟大的亚洲人民有着逆境自强的优良传统。

TT 9: 위대한 아시아인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맞서는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98)

ST 10: 亚欧会议成员在政治、经贸、科技、文化、教育托各个领域, 进行了卓有成效的对话与合作, 促进了两大洲人民之间的了解与友谊。

TT 10: ASEM 회원국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와 협력을 실시하여 양 대륙 사람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80)

ST 8부터 ST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人民’은 국가보다 큰 집단인 ‘대륙’과 결합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중국사회에서 ‘人民’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이해되어 국가 개념을 넘어선 보편적 인간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TT 8에 나타나는 ‘각국’은 ‘아시아’와 ‘국민’ 사이의 다리 역할함으로써 ‘아시아’와 ‘국민’의 묶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ST 9와 ST 10에 나타나는 ‘亚洲人民’이나 ‘两大洲人民’은 모두 비정치적 용어인 ‘인’과 ‘사람’으로 번역되었다. ‘人民’과 달리 한 국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중심적 개념으로 특정한 국적을 지닌 자국민만 가리키고 국가보다 큰 집단의 구성원과 결합되어 사용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한 대륙에는 여러 국가가 분포되어 있어서 ‘국민’으로 한 대륙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을 가리킬 수 없다는 것이다.

ST 11: 环境与发展问题牵动着全世界人民的心。

TT 11: 환경과 발전 문제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14)

ST 12: 这次大会的召开, 是全世界妇女, 也是全世界人民的一件大事。

TT 12: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여성의 행사이자, 전 세계인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50)

ST 11과 ST 12를 보면 ‘人民’은 국가나 대륙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인 ‘전 세계’와 결합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중국사회에서 ‘人民’은 인종과 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키는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 추상적

인 개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ST 11과 ST 12에 나타나는 ‘世界人民’은 동일하게 비정치적 용어인 ‘세계인’으로 번역되었다. 역시 국가적 질서에 종속되는 ‘국민’은 국가보다 큰 집단과 함께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국민’과 ‘人民’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까지 포함하여 사용되는 이데올로기어이지만 ‘人民’은 국가에 종속되는 개념을 넘어서 지역이나 민족 등 훨씬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대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 13: 金大中总统和金正日委员长以政治家的远见卓识, 顺应南北人民的意愿, 成功地举行了首脑会晤, 使延续半个多世纪的半岛紧张形势明显走向缓和。

TT 13: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정치인으로서의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남북한 국민의 바람에 따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반세기 넘게 지속되었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234)

분단대립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상호 배타적인 ‘국민’과 ‘인민’이 남북한의 주체가 되어 외교관계나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주체만의 번역도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체를 비롯한 이데올로기어는 주권의 근본에 대한 상이한 이해방식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ST 13에 제시된 ‘南北人民’은 ‘남북한 구성원’을 지칭하며 TT 13에서는 ‘남북한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에 자국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표현을 작동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보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며 북한의 구성원도 한국의 ‘국민’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북한 구성원에 대해 ‘인민’을 안 쓰는 이유는 단지 한국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체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ST 14: 清华的广大师生心系祖国和人民, 为祖国科学教育事业的发展, 为中华民族的解放和振兴作出了重要贡献。... 在我国革命、建设和改革的各个历史时期, 许许多多的清华人, 响应党和人民的召唤, 在各条战线上艰苦奋斗, 为祖国和人民建功立业。他们是清华大学的光荣也是中国知识分子的骄傲! ... 你们要成为祖国和人民需要的人才, 既要靠老师们的辛勤培育, 更要靠自己的刻苦努力。... 闻一多先生说: “诗人主要的天赋是‘爱’, 爱他的祖国, 爱他的人民。”要成为一个有志和有为的青年, 爱祖国、爱人民是首要的要求。要坚持向历史和现实学习, 向人民和社会学习, 既勇于开拓, 又谦虚谨慎, 善于在集体的奋斗中开创新的事业。... 你们一定要发扬从自己做起、从现在做起的精神, 既富千崇高理想, 又始终脚踏实地, 诚诚恳恳地为祖国和人民做好每一件有意义的事情。我相信, 在祖国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的广阔舞台上, 年轻一代一定会干得很好, 一定能创造出无愧于时代和人民的业绩。

TT 14: 칭화대학의 사제들의 마음은 조국과 민족에 단단히 이어져 조국의 과학교육사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해방과 부흥을 위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 중국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개혁의 역사적 시기마다 수많은 칭화인들은 당과 국민의 부름에 응하여 각각의 전선에서 끝까지 노력하여 조국과 국민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 여러분이 조국과 민족에게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성실한 가르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원이뒤 선생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능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의지가 굳고 전도유망한 청년이 되려면 우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민족과 사회를 배우며, 과감히 새로운 것을 개척하면서도 겸손함과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체 투쟁의 대열에 함께 서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데에도 능해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나부터,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하며,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변함없이 착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의미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저는 조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이라는 큰 무대에서 시대의 새로운 주역인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일을 해줄 것이며, 시대와 민족에 부끄럽지 않은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206-210)

ST 14에 ‘人民’이라는 이데올로기어가 중복되며 연설문에서 겹겹이 나타났다. ‘人民’이라는 용어에는 이데올로기를 불

러일으키는 호소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人民’을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면 감정의 톤을 고조시켜 그 호소 효과에 기여한다. 이는 연설문 텍스트가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 집적 현상이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되는 ‘人民’은 각기 ‘국민’과 ‘민족’<sup>6)</sup>으로 번역되었다.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표준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되고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강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갖는다. 즉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어에는 강한 호소 기능이 자리하게 되어 ‘人民’과 역동적 등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 수용자의 경우 ‘국민’과 ‘민족’이 거의 일치하지만 실현 빈도수 면에서 ‘민족’이 압도적으로 출현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祖国和人民’은 언어를 이루는 대신에 한국어에서 ‘조국과 민족’이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번역자가 한국어와 중국어 간 언어적 관계 어휘망의 유형의 상이함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번역은 TT에서의 자연스러움이 확보되어 TT 수용자에게는 맞춤번역으로 볼 수 있다.

ST 15: 首先, 我謹代表中国政府和中国人民, 并以我个人的名义, 向在座的各位, 向全体韩国国民, 致以诚挚的问候和良好的祝愿!

TT 15: 우선 저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인사와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명연설문 베스트』, 24)

ST 15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대에서 행했던 연설의 도입부에서 발췌된 것이다. 시진핑은 도입부에서 ‘호감사기’<sup>7)</sup>를 이용해 청자들의 호감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韩国国民’<sup>8)</sup>이라는 표현은 청자에게 친밀감을 주면서 호감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 TT 15에서는 TT 수용자가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이어서 한국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국민’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살펴보자.

ST 16: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벽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T 16: 在此, 我谨向各位国民表示衷心的感谢, 同时庄严承诺, 我一定会与各位国民一起完成这一艰巨的历史任务。(『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12)

ST 17: 돌이켜 보면 작년 봄의 극심했던 황사는 우리에게 피해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동북아 황사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TT 17: 回想起来, 去年春天尤为严重的沙尘暴给我们带来了巨大的损失, 但同时也向国民敲响了东北亚沙尘暴极为严重的警钟。(『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90)

ST 16은 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발췌된 것이다. 역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의 반복을 통해 대중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고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ST 16과 ST 17에 나타나는 ‘국민’은 동일하게 ‘国民’으로 번역되었다. ‘人民’과 달리 중국사회에서 ‘国民’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지 않는 일반 용어이지만 ‘국민’과 유사하게

6) 국민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며, 민족은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이다.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된다. 한국인의 경우 국민과 민족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국민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동일한 연설문에서 ‘韩国国民’이라는 호칭은 도입부에서만 나타났고 본문 부분에서는 ‘韩国人民’으로 지칭하였다.

8) 고대 수사학에서 연설문 도입부에서 청자를 준비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청중의 ‘호감사기’, ‘관심끌기’, ‘이해돕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연설자가 감사, 유감, 기쁨 등을 나타내는 것은 호감을 사는 직접적인 방식이다(백미숙, 2002: ).

모두 국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써 의미상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ST 18: 지금 이 시각에도 감염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검역활동과 격리치료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방역관, 계기관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에게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큰 보람과 긍지로 삼고 맡은 바 소임에 더욱 정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T 18: 在此, 我谨与全体人民一起向在这一刻也不顾有可能感染的危险, 献身于检疫和隔离治疗活动的各位表示衷心的感谢和亲切的慰问。..... 因为有各位的献身, 我国国民才能安全地生活。 希望各位以此为光荣和自豪, 更加尽职尽责地完成任务。(『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176)

ST 18은 사스 사태 관련 연설문에서 발췌된 것이고 여기서 언급한 ‘국민’은 ‘한국 국민’을 가리킨다. 두 번 나타나는 ‘국민’은 TT 18에서는 각각 ‘国民’과 ‘人民’으로 번역되었다. 중국사회에서 ‘国民’과 ‘人民’이 모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한 정치 연설문에서 ‘国民’과 ‘人民’을 혼용되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 TT 수용자로부터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고 심지어 상황 인식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ST 18에 나타나는 ‘국민’은 동일하게 ‘国民’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ST 19: 이곳에 오기 전, ‘사스(SARS)’ 퇴치를 위한 중국 국민들의 일치된 노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엄청난 재난을 극복해내신 중국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TT 19: 在来北京之前, 我就听说了许多关于中国人民万众一心抗击非典的报道, 借此机会, 我谨向以不屈不挠的意志和努力克服巨大苦难的中国人民致以崇高敬意和亲切的慰问。(『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208)

중국사회에서 ‘人民’이 지배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ST 19의 ‘중국 국민’은 모두 ‘中国人民’으로 번역되었다.

ST 20: 이라크 국민들의 가슴속에 한국 국민들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주십시오.

TT 20: 希望你们能够在伊拉克人民心中种下韩国国民转达的和平的种子。(『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126)

TT 20에 나타나는 이라크나 한국의 구성원은 모두 ‘국민’으로 지칭되었고 그것이 각기 ‘伊拉克人民’과 ‘韩国国民’으로 다르게 번역되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번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국의 이데올로기가 작동됨으로써 ‘이라크 국민’을 ‘伊拉克人民’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중국사회에서 이라크의 인지도는 깊지 않은 반면에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중국과 밀접한 사회관계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한류 붐으로 인해 중국에서 한류의 유행을 업는 신조어까지 생산될 정도였다. 그중 ‘국민’<sup>9)</sup>이라는 낱말이 중국어에 녹아들어 중국인들이 지장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TT 수용자의 입장에서 ‘韩国国民’은 더 자연스러운 표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5. 나가기

‘국민’은 한국의 주체로서, ‘人民’은 중국의 주체로서 상이한 이데올로기의 포괄적 대변체이다. ‘국민’과 ‘人民’이라는 이

9)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에 ‘欧巴(오빠)’, ‘欧妮(언니)’, ‘思密达(-습니다)’, ‘국민(国民)’과 같은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보인다. 그중 ‘국민’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을 표현으로 중국에서 그대로 녹아 ‘国民女神(국민여신)’, ‘国民老公(국민 남편)’, ‘国民女婿(국민 사위)’이라는 신조어가 파생되었다.

데올로기어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는 본 연구를 출발시킨 근본적인 요소이고 ‘국민’과 ‘人民’이 이데올로기적 각축을 벌이며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국민’과 ‘人民’의 번역

중국 정치 연설문	한국 정치 연설문
中国人民: 중국 국민 韩国人民: 한국 국민 南北人民: 남북한 국민 其他国家人民: 국가명+국민 大洲人民: 대륙명+인/대륙명+사람 世界人民: 세계인 호소 기능의 人民: 국민/민족	한국 국민: 韩国国民 중국 국민: 中国人民 기타 국가 국민: 국가명+人民

(위 도표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민’과 ‘人民’의 개념은 서로 상의함으로 일대일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국민’은 국가에 종속된 개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국가보다 큰 집단의 구성원을 가리킬 수 없는데 반해 ‘人民’은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이나 세계와 직접 결합하여 사용된다. 예컨대 ‘亚洲人民’, ‘世界人民’은 한국어로 ‘아시아인’, ‘세계인’이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둘째, 중국 정치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人民’이라는 이데올로기어는 한국어로 옮길 경우 ‘국민’이 압도적으로 출현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인민’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과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한국 구성원을 가리킬 경우 우선적으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를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만 번역된다.

셋째, 주권자 표현에 있어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를 작동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TT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다. 번역자는 ‘선택적 번역 전환(optional translation shift)’을 통해 양국의 정치체계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특히 정치 연설문 텍스트는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호소 텍스트로서 번역자는 그 주체 표현을 청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전환해야 한다.

넷째, ‘국민’과 ‘人民’에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 연설문에서 동일한 집단을 가리킬 경우 두 이데올로기어를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혼용은 TT 수용자로부터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고 심지어 상황 인식과 혼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체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형태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어도 ‘정치적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번역자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어 번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있는 시점이다. (보충 필요)

부록

연설문명	연설자
中韩友好认识早餐会上的演讲 (한중 우호 인사 조찬회)	唐家璇(당자쉬엔)
博鳌亚洲论坛年会上的演讲 (보아오BFA포럼 제1차 연차 총회)	朱镕基(주룽지)
第三节亚洲会议上的演讲 (제3차 아셈정상회의)	朱镕基(주룽지)
关于非典特别会议上的讲话 (아세안 사스 대책회의)	温家宝(원자바오)
可持续发展世界首脑会议上的讲话 (지구정상회의)	朱镕基(주룽지)
联合国第四届世界妇女大会上的演讲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	江泽民(장쩌민)
韩国经济团午餐会上的讲话 (한국 경제 4단체 주최 오찬회)	朱镕基(주룽지)
清华大学90周年校庆大会上的讲话 (칭화대학 개교 90주년 경축행사)	温家宝(원자바오)
首尔大学的演说 (서울대학교 연설)	习近平(시진핑)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第16任总统就职演说)	노무현(卢武铉)
황사의 지역적 확산과 영향 및 대응 방안 국제 세미나 (沙尘暴的地区性扩散影响及应对方案国际研讨会)	한명숙(韩明淑)
이라크 파병부대 신고 및 환송행사 연설 (伊拉克派兵部队报告及欢送讲话)	노무현(卢武铉)
베이징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 (背景中韩经济界人士邀请午餐)	노무현(卢武铉)
사스 관련 담화문 (关于非典的讲话)	고건(高健)

(보충 필요)

## 〈토론〉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위한 기고”에 대한 토론문

이석철(한국외국어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국민’과 ‘인민’, 중국어의 ‘国民’과 ‘人民’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한중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국민’과 ‘人民’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한중, 중한 정치 연설문을 분석텍스트로 삼고 실제 번역에서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국민’과 ‘人民’의 번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두 어휘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이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표현할 때 모국어의 사유방식의 간섭을 받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간과하고 그대로 직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번역 입문자나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에게서 이러한 오류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텍스트 기능, 전달 매체, 독자 수용 등 번역 브리프에 해당하는 사항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통번역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말하기, 쓰기 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표현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번역의 시각에서 출발한 조신 선생님의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중 양국의 상이한 사회체제로 인해 정치담론, 특히 이데올로기적 어휘들이 지칭하는 의미 범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두고, ‘국민’과 ‘인민’의 정의를 규명하고 이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정치 연설문의 다양한 번역 양상과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중, 중한 양방향으로 실제 번역 사례를 분석하고 번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한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 발표가 번역자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어 번역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표문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이 연구는 한국어의 ‘국민’과 ‘인민’, 중국어의 ‘国民’과 ‘人民’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정치 연설문을 분석텍스트로 선정하였는데 연설문으로만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사문의 독자가 더 광범위하므로 한중, 중한 연설문 외에도 정치 뉴스, 기사 등의 텍스트도 함께 분석하였다면 번역 전략의 다양성을 고찰하는 데에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2. 다음으로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어의 ‘인민’은 한국어 번역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국민’은 중국어 번역에서 한국 국민에만 한정되어 ‘国民’으로 전환되었고 중국과 기타 국가의 국민은 ‘人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역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류의 붐으로 중국인이 자연스럽게 ‘国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 외에도 중국이 북한의 ‘인민’을 ‘人民’으로 지칭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추가된 것은 아닌지요?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의 ‘국민’과 ‘人民’의 번역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데올로기어의 번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을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유의미한 발표내용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가 잘못 이해하여 의견이나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